

2011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 O W A R D S  
G L O B A L  
I N C I

경희대학교

2011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11년 6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 목차

### 발간사

## I. Towards Global Eminence

### 1. 2010, 제 2 도약의 원년

- 경희의 오늘 : '경이로운 경희' 16
-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다 17
  - 후마니타스 칼리지 18
  - 우수 교원 초빙 18
  - 경희지구사회봉사단 19
  -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19
  - 의료기관 비전 선포 19

## II. 학문과 평화

### 1. 교육

-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 24
-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에 기초한 실천 프로젝트 24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선정 26
- 이동문학연구센터 및 사계이동문고 설립 26
- 공공대학원 출범 : 행정대학원, NGO대학원 통합 27
- 강의 평가제도 개선 27
- 해외 석학 초청 특강 27
- 영예학생 프로그램 28
- 공자학원 설립 29
- 교수·학습 포트폴리오 확대 실시 29
- 입학사정관제 확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30
- 교육 역량 강화 사업
  - 경희 OER(Open Education Resources) 31
  - 튜터링(교수학습지원센터) 31
- 우수교원초빙위원회(S&R) 운영 32

## 2. 연구

- 등재 학술지 육성 사업 34
- 2010학년도 연구 지원제도 개선 34
- 해외 우수 교원 초빙(Eminent/ International Scholar) 35
- 창조 21 35
- 경희 Fellow 36
- 청원연구년제 36
- 교원 정년 연장 36
- 연구교수제 38
- 교원 인사규정 개선 38
- 문화재 학술조사 시행 38
- 유물 보존 및 관리 시스템 확충 39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 39
- 미래 기반 기술 개발 사업단 40
- 승진 및 교수 업적 평가제도 40
- 교원 특별 채용 41

## 3. 실천

-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 42
-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 42
- 경희음악캠프 43
- 경희 공공미술 프로젝트(희기 문화 특화 거리 조성사업) 44
- 디자인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44
- 나눔문화 활성화 캠페인 44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경희, 꿈꾸는 학교 45
  - 지역주민의 중앙도서관 이용 합의를 체결 46

- 독거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 : 경희, 해피하우스 46
- 벽화 그리기 봉사단 : 해피아트 47
- 회기동 주민자치 학교 : 좋은 마을 만들기 47
- 주민 컴퓨터교실 : 해피닷컴 47
- 어린이 독서교실 48

2010 Peace BAR Festival 48

실천인문학 48

재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 연해주 해외봉사단 49
- 베트남 하노이 해외봉사단 49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 50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프로그램 50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51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51

경희봉사단 각종 사업 지원 52

국내외 의료봉사

- 아이티 긴급 의료지원단 파견 52
- 연평도 주민 대상 의료지원 53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국내외 의료봉사 53

#### 4. 의과학

의료기관 비전 수립 54

의과학연구원

- 의과학연구원 중앙실험실 개소 54
- 의과학연구원 검체은행 설립 55

경희의료원 국가고객만족도(NCSI) 3위 55

경희의료원 교류협력실 개설 55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턱·얼굴 급속교정센터 개설 56

경희의료원,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판정 56

경희의료원, 2010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판정	57
동서협진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제5회 동서협진 국제 심포지엄	5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협진 시스템 활성화	5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선형가속기 도입	58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다학제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58
경희의료원 전문 진료센터 개설	
· 암센터 설립 추진	58
· 심장혈관센터 추진	59
· 뇌신경센터 추진	59

### Ⅲ. 세계와 경희

Global Collaborative 2010 Summer Program	62
Global Collaborative Abroad	62
Global Studio Network(GSN)	63
복수학위제	64
외국인 지원센터	64
유학생 교육 지원	
· 학습 부진 학생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65
· 유학생을 위한 학습 특강	65
· 유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사 안내	66
외국인 학생 장학금	66
교비 지원 직원 해외 파견 및 해외 지역 문화탐방	67
교원 해외 학술 활동 보조금 지원	67
일본어권 학점 교류 및 복수학위 학생 선발	67
영어권 파견 특별 교환학생 장학금	68
교비 지원 교원 해외 파견 연구	68
University of Washington 하계 연수단 방문 지원	69
2010학년도 문과대학 하계 전공연수 프로그램	69

법학전문대학원 Study Abroad Program	69
호텔관광대학, 톨슨리버스대학과 복수학위 MOU 체결	70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외국인 전용 열람실 개설	70

#### IV. 창조와 도약

##### 1. 행정

자율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74
전문행정 교육훈련체계	74
Organization & Program Review	75
학생 만족도 제고(KSSI) 사업	76
경희기록관 설립	76
온라인 증명 발급 서비스	77
통합 자금 관리(BICNet) 시스템 도입	77
재무 건전성 진단(Financial Solidity Review)	78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 수립	78

##### 2. 복지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설립	80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80
성폭력상담실, 성평등상담실로 개편	80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서울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전 직원 교육	80
· 서울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81
· 국제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81
서울-국제 캠퍼스 셔틀버스 증차 운행	82
국제캠퍼스 수도권 통학버스 운행	82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82  
경희 행정·복지·서비스 2010 프로젝트 82

### 3. 연구·교육 인프라

Space 21 착공 84  
복지회관 신축 84  
걷고 싶은 거리 조성 84  
공공디자인 85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 85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 85  
국제캠퍼스 천문대, 우주과학 전시장 조성 86

### 4. 대학문화

뉴스레터 〈Lux Humanitas〉 88  
'미니홈피 경희' 88  
커뮤니케이션 웹진 'Future 경희' 88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 89  
경희 커뮤니케이션 21 89  
홈페이지 개편 89  
UI(University Identity) 개편 90  
2010 정책백서 〈학문과 평화〉 90  
영상 커뮤니케이션 운영 90  
'매그놀리아 스토리' 소액모금 캠페인 91  
직원 라운드테이블 및 콜로키움 91  
신입생 환영 행사 9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 92  
경희기록관 설립 92  
Magnolia 2010 93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KSSI 사업 추진	93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	94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출범식	94
실천인문학 강좌	95
경희의료원, '경희 SNS 소통 광장'	95
외국어대학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95

## 5. 전진하는 경희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계획, 두 부문 모두 최우수	98
한방 재료공공 학교기업 '2010 모범기업' 선정	98
생명과학대학 '작물 바이오텍 연구센터' 개소	98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	98
경희의료원,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 공식 지정	99
경희의료원 암센터, 다빈치S 로봇수술 204례 달성	99
경희대 부속병원,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 1위'	99
경희의료원 소화기센터, 상부위장관 내시경 2만 례 달성	100
경희의료원 감마나이프 수술 2,000례 달성	100
대한민국 한의학 체험단 협약 체결	100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서울시와 '폐 보철물 기부' 협약	100
동서협진센터, 제3회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101
첨구경락 연구 분야, 20년 간 SCI급 논문 출간 세계 1위	101
세계 최초로 그래핀 광증폭 작용 발견	101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의 '침 치료 효능' 첫 규명	101
항암제 부작용 완화시키는 면역세포 발견	102
출기세포 응용기술 연구	102
이온 전도 영상화 연구단, '2010 창의적 연구사업' 선정	102
한방으로 말기 암 정복	103
응용화학과 학부생 졸업논문,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	103
제1회 '유엔 책임경영 교육' 포럼 아시아 최초 개최	103

경희대, 담강대·미래재단 공동 '아시아의 미래' 국제 학술대회 개최	104
경희 모의 G20 정상회의(Kyung Hee Model G20 Summit)	104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 '삶은 달걀' 개설	105
취업진로지원처, 'OK-MVP'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	105
국제교육원 학생, 각종 한국어 대회 휩쓸어	105
한의학과 학생, '201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106
'배움, 나눔 그리고 채움' 의 제2회 봉사 페스티벌 개최	106
예술대학 학생 7명, 패션 디자인 잡지 <No-Name> 창간	106
전자정보대학 돌쇠팀, '제1회 탐사로봇 경진대회' 1위	106
국제경영학과 학생, 'GE 리더십 UCC 대회' 1위	107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연결하는 대학생들의 혁신 프로젝트	107
국제경영학과 학생, '3,421시간' 봉사 기록 세워	107
스포츠지도학과 학생 "청각장애는 덤벨 드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107
2010 월드컵 영웅, 이정수 동문	108
경희대 야구팀, 대학야구 하계리그 우승	108
경희대 체육부, 제91회 전국체전 값진 성과 거둬	108
경희의 태권남매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빛내	108
총동문회 소식	
· 참여와 도약의 '경희사랑 2011' 신년교례회	109
· 총동문회 도봉산 등산대회	109
· 총동문장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110
· 경희가족 바둑축제	110
·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111
· 총동문회 신임 회장 취임식 및 정기 대의원총회	111

## 사자와 목련

총장 365일 114

총장 연설문 116

통계로 본 경희 2010 144

조직도 145



## ‘경이로운 경희’의 길, 2010 회고와 전망



‘경이로운 경희.’ 지난 1964년, 경희가 개교 15주년을 맞아 선포한 비전입니다.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적인 경희의 창조적 문화세계를 열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화세계의 중심엔 경희의 오랜 전통, ‘학문과 평화’가 있습니다. 학문의 미래를 개척하고,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는 대학의 보편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그로부터 47년. 경희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근간인 학문 발전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희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에도 뜻 깊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경희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연구 부문은 지난 수년간 큰 신장세를 보이며, 질적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교육 부문도 여러 정부기관 지원 사업에서 최상위를 점하며,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 지난 수년간 우리가 함께 이룬 자신감과 자긍심, 소통과 창조의 결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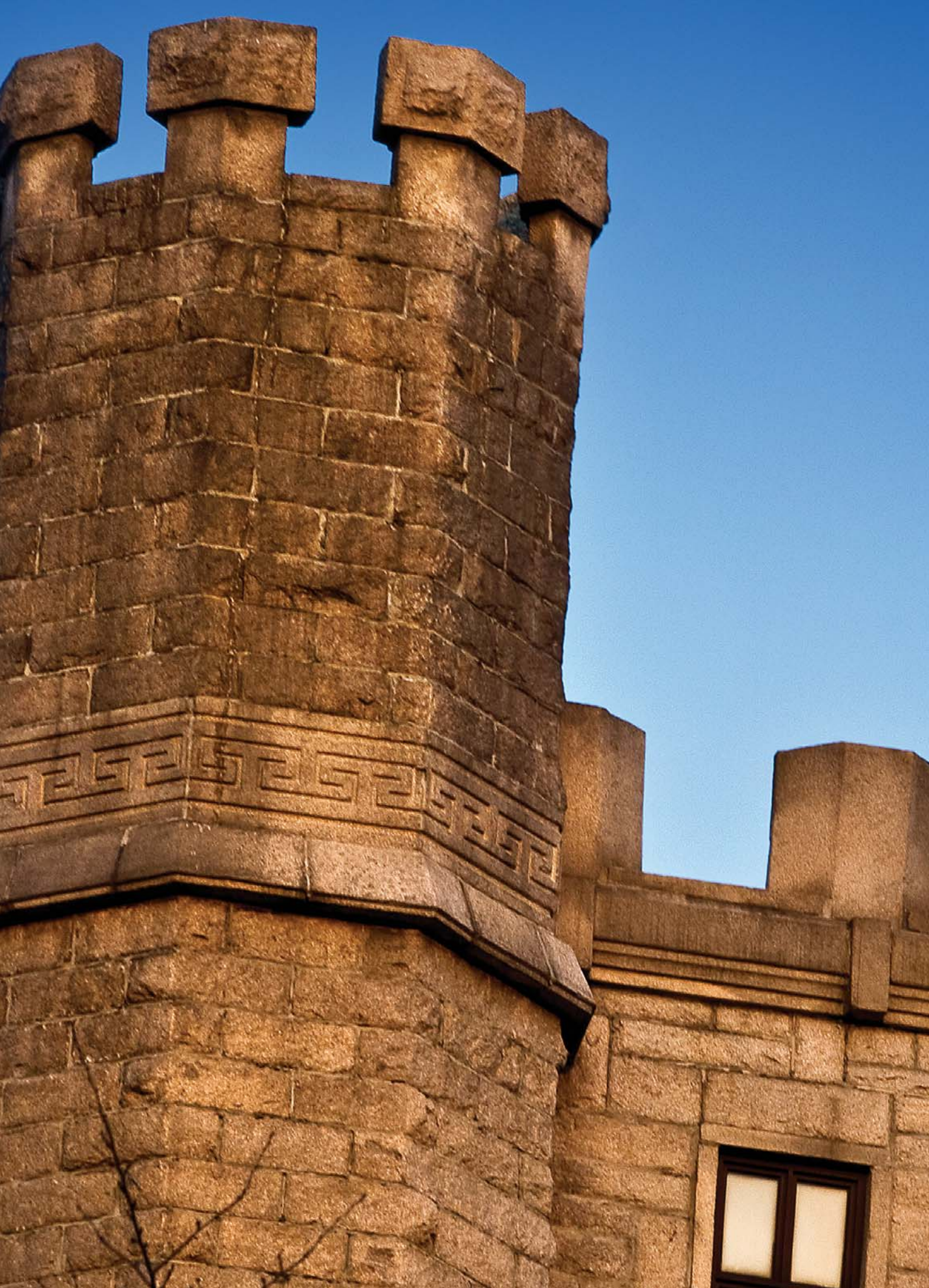
달라진 학문적 위상과 함께, 경희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변화를 기했습니다. 올 3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범 대학 교양기구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세계적인 교양교육, 보편적 시민교육을 목표로 새로운 출발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출범한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은 지역과 사회, 지구촌 곳곳에 경희의 손길을 내밀며 산적한 삶의 문제, 지구적 현안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교육, 연구, 실천, 봉사의 창의적 결합을 도모하며, 학문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로운 인류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도 ‘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지향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건강한 인류사회를 지향하는 병원’, ‘첨단 의료의 미래를 여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임상과 기초, 전공 분야 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탁월한 의료인을 배출하며, 이웃과 지구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세계적인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2010년은 이처럼 ‘경이로운 경희’의 또 다른 발전상을 모색한 해였습니다. 개교 60주년의 성과위에 ‘새로운 60년’을 향한 첫발을 내디디며,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우주의 대양’과도 같은 무한한 우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위해 ‘더 멋진’ 결실을 이루는 것이 2011년의 바람입니다.

경희는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인 ‘캠퍼스마스터플랜’이 착수됐습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거교적 ‘재정위원회’가 출범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 21세기 미래대학의 성숙한 대학문화를 이끌어갈 경희가족 “미래협약”이 연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희가 수립할 종합발전전략 <Global Eminence 2020 -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는 이러한 기반을 축으로 21세기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목련리포트>를 발행합니다.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를 대학운영 기조로 설정한 후, 2008년부터 매년 펴내는 <목련리포트>는 경희의 학문적, 실천적, 창조적 노력의 기록입니다. 경희의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전망하는 이 작은 책자가 경희와 대학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 Towards Global Eminence

2010년은 학문과 평화의 60년 전통을 이어받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새로운 60년'의 출발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뜻 깊은 해였다. 교양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설립되고,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이 출범했다. 이와 함께 캠퍼스 마스터 플랜 'Space 21'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미래지향적 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 2010, 제2 도약의 원년

### 경희의 오늘 : '경이로운 경희'

자긍심과 자신감. 2010년 경희 구성원이 공유한 키워드다. 지난 4년 간 교육·연구·실천은 물론 캠퍼스 인프라에서 행정과 복지, 대학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거듭한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경희대학교의 위상이 달라졌다. 60년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학문과 평화'의 새로운 60년을 향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이로운 경희'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경희의 저력과 발전 가능성은 각종 대외 평가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2010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345위, 국내 7위를 기록했으며,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도 국내 7위(종합대학 5위)를 차지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07년까지 500위권에 머물던 경희는 2009년 300위권(374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345위로 뛰어올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순위 변화도 두드러졌다. 2006년 9위에서 2007년 12위로 주춤했다가 상승일로에 접어들었다. 2008년 10위, 2009년 8위, 2010년 7위로 상승한 것이다. 구성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평가에서도 2009년 2위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학 전체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구체적 미래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희는 개교 60주년을 3년 앞둔 2006년 말,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학다운 대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개교 6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경희는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학술기관이자, 사회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학문적 권위의 재건' '소통의 학문세계' '화합과 창조의 미래사회'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 '최적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구성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1차 결실을 맺은 것이 개교 60주년이었다. 자랑스러운 6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다.

2010년은 개교 60주년의 성과 위에 '새로운 60년'을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문화세계'를 향해 경희의 핵심가치인 '학문과 평화'가 구체적 진전을 보였다. 세계 수준의 교양대학 휴머니티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하면서 21세기 대학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했다. 이와 함께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을 출범시켜, 대학의 학술적 역량을 지역적·지구적 실천과 연계하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에 인류평화를 위한 실천 개념을 도입하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연구·교육 부문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문과 평화'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대학의 위상 변화와 함께 캠퍼스 지형도 크게 달라진다. 2010년 5월, 세계적 명문대학에 걸맞은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국제 캠퍼스 종합개발 사업 'Space21'이 출범식을 가졌다. 약 3년 후면 전통과 미래, 학문과 현실, 지역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꿈의 캠퍼스', '글로벌 경희의 허브'가 완성된다. 2010년 7월에는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의료기관은 진료, 연구, 교육, 경영, 사회적 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경이로운 경희’를 만들어냈다.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 및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교원 확보율,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크게 개선돼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대학’의 내실을 다졌다. 연구 역량도 크게 높아졌다.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 1인당 논문 게재 수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제화와 더불어 경희의 빛나는 전통으로 꼽히는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고, 의료기관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이 같은 ‘나눔과 기여의 정신’은 10월 ‘매그놀리아 스토리’로 이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는 대학 발전기금의 성격과 모금 방식을 쇄신한 것으로, 기부자가 기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 규모도 ‘작은 나눔(소액 성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매그놀리아 스토리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는 기대 이상이었다. 채 두 달이 안 되어 10억 원 규모의 성금이 모였다. 매그놀리아 스토리의 성공은 구성원 스스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지난 4년, 특히 2010년 경희가 이룬 성취가 경희대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여는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다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 구성원은 ‘대학다운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학문적 수월성과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며 변화와 도전을 거듭해왔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모델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2010년 하반기, 경희가 제2의 도약을 위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경희의 잠정적 결론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넘어 지구화하는 세계는 새로운 보편가치,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는 세계 최정상 대학의 거버넌스를 심층 분석해 21세기 미래대학의 전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년 11월 발간된 《정책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대학은 인간과 사회, 인간과 문명,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지구시대의 미래대학은 ‘인간과 사회’ ‘문명과 지구’를 포괄하는 총체적 성찰을 통해, 인간과 지구가 지속가능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구 공동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자유를 제약하는 자유, 평등을 배제하는 평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보편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미래대학은 학문과 인간, 학문과 세계, 학문과 지구의 창조적 만남을 주선하는 주체임을 자임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만으로는 지구 공동사회가 요청하는 시민 육성이 불가능하다. 수월성만으로는 차이와 경계를 넘어 평화와 공영을 실천하는 ‘지구 시민의식’을 키우기 어렵다.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지역적·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학술기관. 이것이 경희가 지향하는 대학다운 대학,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아래는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 추진한 주요 정책의 골자이다.



###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교육.’ 2011년 3월 첫 신입생을 맞이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 목표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종합대학 체제 안에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부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범대학 교양교육 전담 기구로, 지구 공동사회의 문명과 문화를 포괄하는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교양교육 강화 프로그램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지향하는 ‘교양’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능력이 곧 교양이다. 이를 위해 인간과 사회, 역사와 문명을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며, 지구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학제성의 원칙, 지평 융합의 원칙, 문제 탐색의 원칙 등 6대 원칙에 따라 교과 구조, 과목 및 프로그램 편성, 교과 내용 등을 일신했다. 교과 구조를 중핵과목, 기초과목, 배분이수과목, 자유이수과목 4개 트랙으로 구성했다. 글쓰기, 시민교육, 외국어 교과를 필수 기초 과목으로 개설해 대학 수학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24쪽 참조)

### 우수 교원 초빙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우수 교원 확보이다. 경희대학교는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고,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고 있다. 외국 대학의 전임교원 이거나 전임교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우수한 연구 성과와 영향력 있는 저서, 탁월한 창작물 등 실적을 갖춘 학자들을 Eminent Scholar/International Scholar로 초빙했다. 이들은 연구년을 지내거나 단기 체류하면서 강의와 연구, 세미나, 논문 지도 등을 수행하고 경희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 제도를 통해 2010년 우수 교원 총 68명을 초빙했다. 우수 외국인 교원 초빙제도는 외국 대학 및 외국 학술연구 단체와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5쪽 참조)

우수 외국인 교원 초빙제도와 함께 연구 능력이 탁월한 국내 학자를 영입하는 ‘교원 특별 채용’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학과(전공)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 제도를 통해 2010년 서울캠퍼스 11명, 국제캠퍼스 9명 등 모두 20명의 교수를 임용했다. (41쪽 참조)



###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SC)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은 개교 이래 꾸준히 추구해온 '학문과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학내외에서 전개해온 다양한 봉사 활동을 경희학원 전체 차원에서 통합 조정해, 사회공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전문 기구이다.

GSC는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쌓아올린 대학의 지적 자산과 역량을 실천 부문과 창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한다. GSC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구적 실천, 지역사회 동반 사업, 국내외 의료봉사, 온라인 실천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GSC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벗어나 양방향적, 총체적 개념을 도입해,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GSC는 특히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과 연계해 21세기 지구 공동사회가 요청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과정도 주도해나갈 것이다. GSC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학문과 평화'를 지향하는 경희대학교가 '대학다운 대학',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42쪽 참조)

###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캠퍼스는 대학의 전통과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얼굴'이다. 경희의 캠퍼스 지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 Space 21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착공식을 가진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은 교육, 연구, 국제화, 사회공헌이 한데 어우러지는 친환경 캠퍼스를 조성해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öger적 의지의 발현이다.



### 의료기관 비전 선포

창조적 도전으로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의료기관들이 '비전 2020'을 수립했다. 경희의 의료기관 구성원은 2010년 7월 선포식을 통해 미래비전과 핵심가치, 8대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번 의료기관 비전 수립은 내용 못지않게 과정도 특별했다. 의료기관 구성원 대표가 참여한 '비전 설정위원회'는 구성원 면담을 308회 진행하고, 1,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초와 임상 간, 학문과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국내 최정상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 추진 전략은 질환별 전문화, 선도적 진료 모델 구축, 연구 탁월성 확보, 경영 전문성 확보 등이다. 경희의 의료기관은 앞으로 각 단과대학과 의과학계열, 설립 예정인 제3의료원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6쪽 참조)





TO - RENAI

# 학문과 평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경희는 2010년 국내외에서 실시된 각종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했으며, 해외 의료봉사 등 지구적 차원의 인류애를 실천했다. 의과학 경희의 의료기관들은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이라는 '비전 2020'을 수립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이다.





## 교육

###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 대학 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혁신하는 경희대학교 교양과정 총괄 기구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age)가 2011년 3월 출범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대학 교육의 본질 목적이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교양교육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교양은 ‘몰라도 좋고 알면 귀찮은’ 문화적 장식품이 아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내적 견고성’을 길러주는 데 있다. 2009년 11월 후마니타스 칼리지 연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2010년 9월 선포식에 이어 10월 설립 위원회가 구성됐다. 설립위원회는 중핵교과, 기초교과(글쓰기, 영어, 시민교육), 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를 중심으로 교양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중핵과목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I·II’는 전공에 관계없이 신입생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기본적인 탐구 영역으로 1학기에는 ‘인간의 가치 탐색’, 2학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주제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총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했다. 배분이수교과는 학문간 융합을 모색할 수 있도록 7개 주제 영역으로 세분했으며, 모든 과목은 융복합적 성격을 지향하는 과목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역과 지구사회를 아우르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했다. 시민교육은 사회봉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현장 곳곳으로 나가 한국 사회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했다.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교양학(Liberal Studies)을 신설했다. 글쓰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강의 환경을 마련했다. 한 강의실 수강생을 20명으로 낮추어, 충분한 첨삭 지도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교양학은 복수전공 학위로 21세기 지구 공동사회가 요청하는 ‘교양인’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이다.

###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에 기초한 실천 프로젝트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글로벌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에 기초한 실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진로 교육, Big Books 토론회, 후마니타스 렉처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2010년 11월 최종 팀을 선발해, 2011년 1월까지 실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최종 보고서가 지난 2월 제출됐으며, 이 중 우수한 실천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진로 교육 프로그램은 20명 단위로 144개 반을 편성, 8주 동안 진행됐다. 2010년 7~8월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선발했다. 9월 초 진로 지도 적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워크북 제작에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신입생에게 진로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진로 적성검사를 기반으로 팀을 구성해 Big Books 토론회와 실천 프로젝트를 수행, 이론과 실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진로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 학기 중에 온라인 강좌로 개설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독서 활동을 통해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Big Books 토론회는 2010년 8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와 참고도서를 선정했다. 9월 신입생을 대상



7차선단,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찾아서 Empowering Global Eminence

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유형별로 5~6명씩 팀을 구성하고 신청 도서를 배부했다. 10월 캠퍼스별로 본선 진출 팀을 3개 영역에서 각 1팀씩 선발했으며, 11월 독서토론 결승대회를 가졌다. Big Books 토론회는 비판적, 능동적, 창의적 독서를 통해 지구적 의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함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학부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희대학교는 2008년부터 이 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지원의 교육 역량 강화 장학금 지급, 학년별 맞춤형 취업 진로 프로그램, 튜터링, 경희 OER(Open Education Resources), 영예학생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몰입형 기숙 프로그램 기반의 저학년 진로 설계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경희대학교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시민 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학적 소양,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한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세부 사업별 자율성과 지표를 설정해 100% 달성했으며, 그 결과 2009년 우수 사례 공모 사업 구성 및 관리 부문 우수 대학, 2009년 성과 평가 최우수 대학, 2010년 사업 계획 컨설팅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경희대학교는 더욱 강화된 학부 교육으로 전문지식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 아동문학연구센터 및 세계아동문고 설립



국내 최초로 아동문학 전문 연구기관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2010년 4월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및 세계아동문고를 설립하고, 개소식과 함께 '한국 아동문학 연구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센터의 산파인 이재철 선생은 아동문학 연구와 교육에 평생을 바쳤고, 수십 년에 걸쳐 수집, 정리해온 소장 도서 1만 3,000여 권과 희귀 자료를 경희대학교에 기증했다. 경희대학교는 아동문학 관련 자료를 기증한 세계 이재철 선생의 아호를 따 중앙도서관에 세계아동문고를 설립하고, 자료 수집과 보존 관리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아동문고에는 이재철 선생 외에도 김성년, 신현득 선생이 1만 여 권의 장서를 기증했다. 이 문고에는 1906년에 발간된 《소년 한반도》등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도 없는 해방 전 희귀 아동 잡지와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연구센터는 세계아동문고를 기반으로 한국 아동문학의 연구와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계간지 《아동문학평론》을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아동문학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 공공대학원 출범 : 행정대학원, NGO대학원 통합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공적 거버넌스를 탐구하는 공공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이 출범했다. 공공대학원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통합적 인재를 양성해 급변하는 21세기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의 행정대학원과 NGO대학원을 통합한 공공대학원은 정부, 시민사회, 법조, 언론, 문화, 국제기구 등 관련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문·사회계를 아우르는 특성화 대학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공대학원은 정책학과, 의료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NGO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했다. 전·후기 모집 정원은 113명이다.

공공대학원은 관련된 기존 분과학문 분야를 창조적으로 해체, 재구성하면서 통합 학문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 국제관계를 망라하는 융합 전공을 신설해 시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한다. 소속 교원과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의평가 제도 개선



강의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문항, 전임·비전임 가산점 부여, 평가 결과 공개, 평가 제외 대상 등의 항목이 개선됐다.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 2010년 2학기까지는 강의평가가 학기말에 1회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시 1회, 학기말 1회로 늘어난다. 수시평가는 개방형 질문으로 하되, 기말평가는 평가자 항목 2문항, 필수 10문항,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확정했다. 종전에는 이론·실습·실기별 평가 문항이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론·실습·실기별로 개선된 평가 문항이 제시된다. 단과대학별로 평가 문항의 수정 입력도 가능하다. 또 전임·비전임 교원 간 가산점 부여 체계도 통일했다. 신입생 세미나 1, 2를 제외한 강좌에는 전임·비전임 교원 모두 가산점 부여가 없다. 강의평가 결과 공개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한 95%의 점수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이 강좌 특성에 맞는 강의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시평가 제도가 도입돼 학생들의 의견이 해당 강좌에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신입생 환영식을 비롯해 치의학전문대학원, 경희법학연구소 등에서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2월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식은 '따분한 행사'를 '지적인 축제'로 끌어올



리는 계기였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 신입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참석한 이날 환영식의 백미는 제1회 '미원 렉처'였다. 특강 명칭은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호에서 따온 것으로, 첫 초청 인사는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폴 케네디 교수였다.

폴 케네디 교수는 '교육과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인류의 미래는 대학 교육, 특히 폭넓은 지식과 아울러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를 길러주는 전인적 교양교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폴 케네디 교수는 "경희대학교는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실용적 교육과 문화적 교양교육이 모두 가능한 대학"이라고 말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미국 UCLA 치과대학 박노희 학장을 초청해 해외 치의학의 현황을 듣고, 이를 한국 현실에 대입해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노희 학장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 국제치과연구학회에서 '뛰어난 과학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노희 학장은 2010년 3월 오비스홀 151호에서 'Career Management of Dentistry'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전체가 참석했다. 특강을 계기로 8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UCLA 치과대학의 자매결연이 맺어졌다.

경희법학연구소는 지난해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비교법 연구의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초청한 해외 석학이 소속된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3월에는 오무라 마사히코 일본 주오대(中央大) 로스쿨 전 원장을 초청해 '일본 법조인 양성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5월에는 다나 파베 미국 알래스카 최고재판소 판사가 방문해 '판사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11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에카르트 레흐빈더 교수를 초청해 '독일의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최근 동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영예학생 프로그램



영예학생 프로그램(Pride and Honor Program)은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세계인을 양성하고, 미래의 지도자 그룹을 육성하는 교육 과정으로, 교육 강화 사업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실천적·도전적·전인적 활동을 장려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 수월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예학생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생 10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 중 읽기, 쓰기, 토론, 영어토론, 리더십,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3주간의 기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팀별 실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시행한 후 결과 평가에 따라 영예학생으로 인증받는다. 사회공헌 실천 프로젝트에는 선발 학생 전원이 참여한다.

2010년 6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총 99명의 예비 영예학생을 선발했고, 같은 해 8월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11월부터는 총 34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총 150시간 이상의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리더십 교육, 국제사회와 문화, 글로벌 이



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한편, 지도교수 1명과 2~4명의 학생이 팀을 구성해 '외국인을 위한 한글 배우기 스마트폰용 어플 제작',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다양한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코 캠퍼스를 기획하고, 나눔문화 캠페인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 각 실천 프로젝트는 5개월 이상 진행됐다.

영어학생 프로그램은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학업 우수 사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종 대외 공모전 입상을 통해 경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공자학원 설립



2010년 4월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에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재학생에게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인에게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중국 문화의 메카'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자학원은 교육, 문화체험, 연구 및 교육 개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어 회화와 비즈니스 중국어 과정, '한어 수평고사' 준비반, 한문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권, 서예, 요리, 문화탐방 등 다양한 테마 강좌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어 교육 포럼과 교재 개발, 각급 학교 중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고, 중국 장학생 선발과 유학 자문 등 중국문화원 기능도 병행한다.

공자학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중국어 시험 고시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중국어, 중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공자학원은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교수·학습 포트폴리오 확대 실시



교수(teaching) 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수·학습 포트폴리오를 시행하고 있다. 교수 포트폴리오란 교수 활동에 수반되는 교육 활동의 철학과 목표, 그리고 교수 활동 중에 활용되는 모든 교육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해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학습 포트폴리오는 교수 포트폴리오와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학생이 수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등을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습 포트폴리오는 2007년 서울캠퍼스에서 신설됐으며, 2009년에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과목의 교수·학습 포트폴리오를 실시했다. 같은 해 교수 포트폴리오 100개, 학습 포트폴리오 400개를 완료했다. 2010년에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인 '경희 OER'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다. 2010년 현재 교수 포트폴리오 125과목(125개), 학습 포트폴리오 299과목(405개)을 개발 완료했으며, 이 중 교수 포트폴리오 102과목, 학습 포트폴리오 299과목(405개)은 학내

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해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교수·학습 포트폴리오 이용 빈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1만 6,347건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이용 빈도가 11만 610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며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창의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강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협동 의식을 높일 수 있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성숙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입학사정관제 확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희의 인재상인 '세계인, 전문인, 문화인'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했다. 전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기본 원칙과 입학사정관제 신설 초기의 취지를 되살려, 고교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학생이 고교에서부터 양질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학 최초로 각 고교의 특색을 반영한 대입 전형을 도입했다.

경희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으로서, 입학사정관제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입학사정관 전형 전체에서 학생들의 '역경 극복' 부분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고,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 인원의 60%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학제도를 통해 역경 극복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학(Need-based Scholarship)'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형 개발과 현직 고교 교사 및 학생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11학년도 수시 1차에서 네오르네상스 전형 512명, 오토피아 전형 210명을 선발했고, 정시 나군에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144명, 전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 96명, 농어촌 학생 전형 194명을 선발했다. 또한 오토피아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하고 모범학생 전형, 사회공헌 대상자 전형, 역경 극복 전형을 오토피아 인재 전형으로 통합·신설해 선발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가운데 서울캠퍼스 10명, 국제캠퍼스 20명 등 총 30명을 선발해 '4년 장학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는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잠재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09년 116명, 2010년 680명에서 2011년 1,252명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대학의 인재상 및 모집 단위에 맞는 학생 선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해 선발-육성-졸업 이후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2학년도에는 학업 성적이 낮지만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과 함께, 고교 다양화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고교 교육 과정 연계 전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 교육 역량 강화 사업



### 경희 OER(Open Education Resources)

강의의 질적 수준과 학생의 활용도를 높이고 심화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Open Lectures 50개 과목을 공개했다. 강의 공개의 효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글로벌 수준의 고급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Open Learning Contents 50개 과목을 개발해,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Open Lectures와 Open Learning Contents로 구성되는 경희 OER은, 강의 콘텐츠의 내실화는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강화하고,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강의 공개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경희 OER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 설명회,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 클리닉을 실시했으며, UCC 제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강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 Open Lectures 5과목, Open Learning Contents 20과목을 선정했다.

경희 OER 사업은 강의 전반에 걸친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면서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과 학습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강의 콘텐츠를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대학의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여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 튜터링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튜터링은 학습 소수자를 위한 튜터링과 자율 운영과 연계한 재학생 튜터링으로 나뉜다. 학습 소수자 튜터링은 학습 부진 학생과 Fellow 면학 장학 대상자, 장애 학생,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학업 능력과 장애 유형에 맞춘 개별 학습 지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율운영과 연계된 재학생 튜터링 역시 맞춤형 학습 지원체계로,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단과대학의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튜터링은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 학습 관리를 통해 전 과목에서 고른 학업 성취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한 학습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튜터링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튜터 및 튜티를 모집해 면담과 매칭을 실시했다. 이어 9월에는 학습 소수자 150팀 330여 명과 자율운영 250팀 560명을 선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10월에는 학습 소수자 튜터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워크숍을 총 4회 실시했고, 자기 효능감 및 만족도 1차 검사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자율 학습법 워크숍과 튜터링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했고, 12월에는 자기 효능감 및 만족도 2차 검사에 이어 최종 모임과 우수 튜터링 팀 시상식을 가졌다.

체계적인 튜터링 운영을 통해 학습 소수자 참여 학생의 평균 성적이 5% 올라갔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도 향상됐다. 전공별 맞춤형 튜터링도 전공 성적을 끌어올렸으며, 학업 만족도와 평균 학력도 동시에 상승했다.





우수교원초빙위원회  
(SRC) 운영

SRC(Search & Recruit Committee, 우수교원초빙위원회)는 교수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International Scholar를 포함한 국내외 우수 교원의 채용을 확대해, 대학의 국제화·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가령, 해외 석학의 인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과 외국인 교원 확보율, 영어 강의 비율을 높여 주요 역량 지표를 향상시킨다.

SRC는 단위별 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원 후 선정' 방식이 아닌 '탐색 후 영입' 개념을 도입,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국내외 학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 초빙위원회는 서울캠퍼스 22명, 국제캠퍼스 28명으로 구성했으며, 학과별 특별 채용 후보자를 탐색하고 ES(Eminent Scholar)와 IS(International Scholar) 발굴을 위한 Host 교수 간담회를 개최하며, 매뉴얼을 제작하고 유관 부서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SRC 시스템을 통해 특별 채용한 우수 교원은 서울 11명, 국제 28명으로 총 39명이다



## 연구

### 등재 학술지 육성 사업

교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집중 육성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시키고, 교내 부설 연구소(원)가 펴내는 학술지를 SCI(E)급 국제 학술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서울캠퍼스의 경희법학연구소 등 7개, 국제캠퍼스의 비교문화연구소 등 3개, 총 10개 연구소를 지원하면서 시행됐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언어연구》, 《비교문화연구》, 《아태연구》 등 교내 학술지 3종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업무를 연구산학협력처로 이관하고 서울캠퍼스의 언어연구소 등 8개, 국제캠퍼스의 비교문화연구소 등 3개, 총 11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같은 해 2월 《사회과학연구》, 《오토피아》 등 2개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승격됐다. 2010년 12월 현재 등재 학술지는 서울캠퍼스의 《경희법학》, 《OPEM》, 《언어연구》, 국제캠퍼스의 《비교문화연구》, 《아태연구》 등 5개이고, 등재 후보 학술지는 서울캠퍼스의 《사회과학연구》, 《오토피아》, 《동서간호연구》, 《의료경영학연구》 등 4개이다.

교내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국제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산학협력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재 학술지 육성 사업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별로 학술지당 연간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국제 학술지 육성 사업은 2010년 1월 국제 학술지 등재 기준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 학술지 육성을 위한 TF 회의에 이어 11월 교육·연구 수월성 통합위원회에서 검토를 완료했다. 2011년 3월 예산을 확정하고 10월 경 외부기관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대응 연구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 2010학년도 연구 지원제도 개선



연구 수월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09년 12월~2010년 1월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비 연구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 지원제도 개선은 교비 연구비 지원과 교비 연구 활동 지원으로 추진됐다. 국제 1급(SSCI, A&HC) 학술지의 논문 별쇄본 제출 기한을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미 발간된 석·박사 학위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신청할 수 없도록 연구 윤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논문 게재 장려금 지급 방식도 논문 실적 입력 후 논문 게재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을 개선해,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논문 실적 입력과 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지급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2010년 국제 논문 게재 실적이 2009년 대비 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대학의 국제 논문 게재 실적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거나 전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우수 교원 초빙 (Eminent/International Scholar)



우수한 해외 학자와 경희대학교 교수와의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강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고 있다. 해외 우수 교원은 외국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전임교원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와 영향력 있는 저서, 탁월한 창작물 등 실적을 갖추고 있는 학자를 말한다. 우수 교원으로 초빙되면 연구년을 지내거나 단기 체류하면서 강의와 연구, 세미나, 논문 지도 등을 수행하고 경희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ES(Eminent Scholar)는 세계적 실천가 또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로서, 경희대학교의 운영 기조를 완성하거나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석좌교수로 임용한다. IS(International Scholar)는 연구 능력이 탁월한 해외 학자로서, 경희의 연구 성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빙교수로 임용한다.

우수 교원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SSCI 또는 A&HCI에 연간 2건, 자연·의학 계열은 SCI에 연간 3건을 게재해야 전임으로 초빙된다. 채용은 초빙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둔다. ES/IS 초빙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 등이 참여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외 우수 교원 초빙 사업은 ES/IS의 복지 부문을 상시 점검하고, 연구 실적을 점검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ES/IS 초빙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1월까지 총 68명을 우수 교원으로 초빙했다. 2010년 3월 계약이 만료된 ES/IS 11명은 경희대학교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16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실적을 올렸다. 해외 우수 교원은 연구 활동과 함께 계절학교인 Global Collaborative 강의, 세계시민포럼(WCF) 참가 등으로 경희대학교의 사회적 평판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ES/IS 초빙제도를 통해 외국 대학 및 외국 학술연구 단체와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실천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펼침으로써 해외 우수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창조 21

‘창조 21’ 프로젝트는 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학술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기존의 학문 틀과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연구·교육·실천·교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7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2008년 9월 의학, 자연, 인문, 공학, 예체능 분야에서 총 28개 과제의 예비계획서를 접수했으며, 발표 평가와 국내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2009년 9월 최종 후보를 선정한 데 이어, 2010년 7월 예비연구비를 집행했다. 예비연구비가 집행된 최종 3개 사업은 인문사회계열의 ‘미래 창조 프로그램’(NGO대학원 이동수), 의학계열의 ‘신의학연구원’(한의학대학 최승훈), 공학계열의 ‘경희 네오 휴먼케어 연구센터’(전자정보대학 허의남)이다. 본연구에 대한 지원 여부는 앞으로 1년 간 진행되는 예비연구의 결과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는 ‘창조 21’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공간을 넘나들며 미래 학문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경희 Fellow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 문화를 진작하기 위해 '경희 Fellow'를 시행하고 있다. 경희 Fellow는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원)장이 추천하면, 경희 Fellow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임명 기간은 2년이며, 3년간의 연구 업적을 평가해 재임명이 가능하다. 경희 Fellow로 선정되면 연간 6~9학점을 강의하고, 특별 연구 격려금으로 연간 3,000만 원이 지급된다.

경희 Fellow는 2008년 2명의 교수를 임명하면서 처음 시행됐다. 2009년에는 모두 10명이 선정됐고, 2010년에는 권택영(영어), 장혜정(경영), 김훈식(이과), 문용재(대학원 우주탐사), 김갑진(공과), 강용태(공과), 김성훈(대학원 기초한의), 김동현(대학원 나노의약) 교수 등 총 8명이 임명됐다.

경희 Fellow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 대한 학교의 존중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한다. 경희 Fellow는 학내 연구의 허브는 물론 신진 학자들의 멘토 역할도 수행한다.

### 청원연구년제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무위원으로 근무하다 이임한 교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청원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원연구년제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연구 논문, 교육 제안, 예술 창작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또한 2년 이상 교무위원 보직을 맡고 이임한 교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2008년 교무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보고한 이후 2009년부터 청원연구년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청원연구년 신청자는 캠퍼스별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010년 서울캠퍼스 6명, 국제캠퍼스 4명이 선정됐다. 청원연구년 수혜 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교원 정년 연장

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2009년 경희학원 정관 37조 2항(교원의 정년)과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0조(정년)를 개정했다. 2011년 1월 현재, 교원 정년 연장(안)에 대한 대학(원)별 자체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구 실적에 대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정년이 연장된 교원의 권한과 책임은 전임교원과 동일하다. 교원 정년 연장으로 50~60대 교수들이



보다 장기적인 연구를 계획할 수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원로 교수들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외부 중진 및 원로 교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원로 교수 집단과 신진 교수 집단 사이에서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연구와 교육, 사회공헌 부문에서 정년 보장 교원들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교수제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박사급 연구자를 연구교수와 학술연구교수로 선발하고 있다. 2009년 9월 사업안을 확정하고, 2010년 2월 연구교수(가형)와 학술연구교수(나형)를 임용했다. 연구교원은 전임 교원의 추천을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교원 지원 사업(KH Spirit & Pride)이 정한 기준 이상의 연구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임용 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업적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 총 임용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0년 서울캠퍼스에서 연구교수 19명, 학술연구교수 16명, 국제캠퍼스에서는 연구교수 18명, 학술연구교수 18명 등 총 71명을 최초로 임용했고, 2010년 11월~2011년 1월 양 캠퍼스에서 연구교수 32명, 학술연구교수 26명 등 총 58명을 재임용했다. 연구교수는 이공·의학 계열의 경우 SCI(E)에 연간 3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SSCI(A&HCI)에 연간 7건 혹은 등재지에 7건 이상 게재해야 한다. 학술연구교수는 이공·의학 계열의 경우 SCI(E)에 연간 2건 이상,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SSCI(A&HCI)에 연간 1건 또는 등재지에 4건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

### 교원 인사규정 개선

각종 교원의 인사 관련 규정을 개선해 제도와 정책 수행의 안정성을 다져나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대학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교내 상황에 맞게 접목시키고, 다양한 정책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각종 교무 업무와 관련된 학칙과 규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관련 부서간 연석회의, 법무감사실 심의, 부총장회의 개최, 교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010년 11월 개정된 규정은 전임교원 임용 규정,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 세칙이다. 전임교원 임용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신임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기준 조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각 대학(원)별로 내규를 제(개)정해 논문의 질적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 세칙은 비정년 트랙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했으며, 정년 트랙으로의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트랙 전환 이후의 승진, 재임용 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 6월 폐지된 규정은 전임교원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규정과 보직 관리 규정이다.

### 문화재 학술조사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문화재 학술조사를 시행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표조사와 함께,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시대 등을 파악하는 발굴조사가 병행됐다. 이를 통해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출토 유물은 박물관 등에 전시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표조사는 서울 강동구 주공 2단지, 경기도 여주 제2 여주대교 기설 공사, 용인 하수관 정비 사업, 용인 천리 물류창고 신축 부지에서 이루어졌고, 시굴조사는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 지구간(1구간), 용인 천리 물류창고 신축 부지에서, 발굴조사는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 지구간 C구역,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 지구간 D구역에서 진행됐다.

이번 문화재 학술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863점에 달한다. 관정, 청동 수저, 동전, 철제품 등의 금속이 125점, 청동기시대 관옥을 포함한 구슬류가 19점 출토됐다. 무문토기 심발, 백자 향아리, 백자 명기 세트를 포함한 토기편, 기와편, 도기편, 분청사기편, 백자편이 1,642점 출토됐고, 구석기시대 석기도 77점이 나왔다.

중앙박물관은 문화재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사 지구 출토 유물 기획전'을 개최했다. 출토된 유물은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미흡한 서울 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서, 학술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유물 보존 및 관리 시스템 확충



중앙박물관은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존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소장 유물 관리 시스템을 확충해 유물 보존을 최적화하고, 소장 유물의 전산 정보화를 통해 연구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과학적 보존 처리는 부식이 진행 중인 철기 유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시실과 수장고 환경을 개선해 보존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소장 유물 300점을 전산 정보화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철제 유물 117점에 대한 보존 처리는 위탁 협약기관인 한서대 문화재보존센터에 의뢰해 시행했으며, 전시실 진열장과 수장고에 온습도 측정 및 기록 장치를 각각 14개 설치했다. 고고역사관(416호) 중앙 홀에는 유물 벽부장을 설치했고, 고고역사관의 이동식 진열장 2개를 교체했다. 이와 같이 보존 처리와 관리 시스템을 확충함에 따라 전시 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박물관은 지속적인 유물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박물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

정부 지원 시책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의 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우수 연구 인력에게 창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사업은 대학(원)생의 창업 경연대회와 연계해 우수 아이템을 갖춘 학생과 동아리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0년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동문 9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선정해 창업 준비 활동을 지원했다. 정부 지원금 6억 3,9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억 1,300여 만 원으로 회사 설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했다. 2010년 6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12월에는 초기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경영자 마인드와 창업 지식을 습득케 하는 맞춤 교육과 전략적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실제적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공동 교육도 시행됐다.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협약 기간인 2011년 2월 안에 16개 과제가 100% 창업(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월 창업을 완료한 과제는 16개 과제 중 10개로 63%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 기간 내에 나머지 6개 과제 모두 사업자 등록 및 시제품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예비 기술창업자를 육성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열어주는 것 외에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교수와 연구원의 기술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미래 기반 기술 개발 사업단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약학대학 약학교실이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하이브리드 기술에 기초한 4차원 교정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미래 기반 기술 개발 사업단'을 설치했다. 2010년 3월 개소식과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사업단은 그 동안 SCI 저널에 1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 학회에 30회, 국내 학회에 21회 참여했으며, 특허를 8건 출원하고, 6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호선 선택 프로토콜을 위한 자료 수집, 치아 이동 가속화를 위한 기초연구, 교정치료 가속을 위한 약물 치료 시스템, 교정력 측정 장치 프로토타이프 제작, 3차원 이미지 재구성 알고리즘, 치아 영상 분리 알고리즘 등 다양한 연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정치료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시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치근 흡수 등의 부작용도 방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 기반 4차원 교정치료에 따른 체계적, 정량적 임상 자료를 획득하고 치료 기술을 향상시켜, 교정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교정치료와 개별 치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하이브리드 약물 요법도 개발했다. 사업단은 1차 연도 목표를 100% 완수하고, 현재 2차 연도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2014년 8월 까지 과제를 수행한다.

### 승진 및 교수 업적 평가제도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교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사기를 높이고자 승진 및 교수 업적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 승진 기회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 실적의 계열을 세분화하고, 교수 업적 평가에 따른 연봉 차등 그룹을 'S1, S2'급으로 분류했다. 연봉 차등 그룹의 업적을 절대평가로 정량화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이전 수입금을 업적 평가에 반영했다. 교무위원은 대학 행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고, 발전기금 유치 실적을 사회봉사 실적으로 인정했다. 대학(원)에서도 자율운영에 따른 자체 승진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달성한 경우, 승진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영대학 경영학부 장혜정, 생명과학대학 전종성 교수가 정교수로 특별 승진했다.

2011학년도부터 상향된 승진 기준이 적용되면 연구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직자의 연구와 사회봉사 실적을 조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 교원 특별 채용

연구 능력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를 영입하는 교원 특별 채용 제도를 통해 연구 중심 대학,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별 채용은 계열별로 부교수 승진 기준의 1.5배 이상 연구 실적을 보유했으며 학교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외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원 특별 채용 절차는 학과(전공) Search & Recruit위원회에서 후보자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추천된 대상자를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어 인사자문위원회의 검증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과 이사장의 면접을 통해 임용된다. '선 채용 후 평가' 방식의 도입과 함께, 특채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잠재력이 인정되는 교원의 경우 특별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2009학년도에는 총 27명이, 2010학년도에는 서울캠퍼스 11명, 국제캠퍼스 9명 등 총 20명이 특별 채용됐다. 국내외 우수 대학에서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수들이 영입됐다.

## 실천

###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출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는 동시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구사회에 기여하는 거교적 사회공헌 기구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Global Service Corps)이 2009년 10월 출범했다. GSC는 특히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의 시민교육·사회봉사 교과와 연계해 지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GSC는 2010년 서울캠퍼스 9월 평화의 전당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함께 출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동아리 회원, 시민단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약 3,000명이 참석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출범식은 미원 록쳐, 라운드테이블, 출범식, 기념음악회로 구성됐다. 미원 록쳐에서 고이치로 마츠우라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문명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라운드테이블의 테마는 '대학 교양교육과 사회봉사'였다. 도정일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고 조인원 총장, 마츠우라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연세대 박형지 교수, 김진경 시인, 안승갑 노숙인 출신 작가, 홍진화 학생이 패널로 나와 대학 교양교육과 사회봉사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진 출범식에서는 도정일 교수의 비전 설명과 함께 비전 영상이 상영됐다. 마츠우라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축사에 이어, GSC 출범 기념 테마송 헌정식과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와 음악대학이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베토벤 '삼중협주곡' 중 1악장을 연주하며 출범식을 축하했다.

GSC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먼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과 연계된 봉사 학습 프로그램인 Global Praxis Program, 둘째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21세기 인류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연구 네트워크인 Global Research Network, 셋째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등 의과학계열을 기반으로 한 의료 사회공헌 프로그램 Global Medical Service Corps, 마지막으로 온라인 영역에서 대학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On-Line Service Program 이다.

GSC의 핵심 사업은 사회공헌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공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내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GSC는 대학 사회공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며 억압과 갈등, 기아와 질병, 기후 변화, 에너지와 식량,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인류사회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

2010년 1월 발생한 대지진 참사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티에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구현했다. 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됐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의료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유엔, 정부, NGO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장 중심의 구호 활동 지원을 추진했다.

부총장단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경희 아이티 지원단'과 미래문명원 사회공헌팀을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해 아이티에 긴급의료봉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구호 성금을 모금했다. 대학 홈페이지와 이메일 공지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모금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해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소액 다수 모금을 추진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벌인 결과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경희 구성원 416명이 참여해, 총 22,458,496원을 모금했다. 성금은 2010년 1월 14일 현장에 급파된 굿네이버스 긴급구호단을 통해 전달됐다. 긴급구호단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쌀, 콩, 파스타 등 식량을 구입해 아이티 지진 참사 지역으로 운송했다.

의료와 식량 지원의 실질적인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은 경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소액 기부 운동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 경희음악캠프



대학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개설한 경희음악캠프는 대학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나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희음악캠프는 '소통의 문화, 문화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장르간 벽과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는 화합을 이루었다.

경희대학교와 (사)미라클오브뮤직(MOM)이 주최하고 미래문명원, 음악대학이 주관한 경희음악캠프는 2010년 8월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학생들과 대전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개인 레슨, 특별 교육, 기념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의 전신은 1979년 창단된 소년의 집 관현악단으로, 부산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연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구성했다. 경희음악캠프를 주최한 (사)미라클오브뮤직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음악을 통한 사회적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강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전문 강사와 음악대학 학생들이 1:1 개인 레슨과 파트 연습을 진행했다. 기획 프로그램으로 음악의 이해, 타악기 배우기, 뮤지컬의 이해 등 이론 강의도 병행했다.

캠프 기간 중 조인원 총장은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와 대전예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경희역사 배우기와 캠퍼스 투어도 열렸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사회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 경희 공공미술 프로젝트 (회기 문화 특화 거리 조성 사업)



“회색 시멘트벽에 우리들의 삶을 그리자.”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대학이 수업과 연계해 서울캠퍼스 정문과 후문에서 회기역에 이르는 대로와 골목길의 벽에 시각적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벽화 그리기, 스트리트 퍼니처(거리 가구) 제작하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봄에 시작된 이 사업의 1차 목표는 벽화 200점을 완성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현재 미술대학생과 교수, 주민이 참여해 벽화 50점을 제작했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벽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려나갈 벽화에 대한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회기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경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대학문화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소통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가꾸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예술 창작을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서울 동북지역 대학문화 벨트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자인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젝트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김형석 교수가 디자인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의 사회 환원, 지식 나눔, 재능 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희대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아이덴티티 디자인 강좌를 맡으면서 재정이 부족해 디자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내 70여 곳의 사회봉사기관 및 비영리 학술기관 등에 CI를 제작, 무상으로 기증해왔다. 김 교수는 매년 3월 50여 명의 학생과 함께 기부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두 학기에 걸쳐 CI를 완성하도록 했다. CI를 제작하는 데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5년 첫 해에 3곳에 재능 기부를 시작해 2006년에는 15곳으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경희 그래이트 서포터즈, 나눔의 등지,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동물보호학대방지연합, 아동보호기관 로템나무, 프로보노 코리아, 한민족복지재단 등 14곳에 CI를 기부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과제 연습 정도로 생각했던 대상 기관들도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받고서는 만족스러워했다. 김 교수의 재능 기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직접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0 대한민국 휴먼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 교수는 앞으로 수혜 대상을 해외 오지로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디자인을 통한 사회봉사 프로젝트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봉사단체를 지원할 뿐 아니라, 학생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디자인이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재능 기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나눔문화 활성화 캠페인

학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구적 나눔과 실천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캠페인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나누는 금액보다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나눔의 의미를 체험하고, 나와 경희, 나와 아시아, 나와 아프리카, 나와 지구 간의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캠페인은 국제캠퍼스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유학생 6명의 제안에 의해 촉발됐다. 대홍수가 일어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2010년 11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과 영예학생, 경희봉사단, 경희 Bean, 북적북적 등이 유니세프(UNICEF)의 모금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호 성금을 모으는 한편, 양 캠퍼스에서 음료를 팔아 기금을 마련했다. 이 캠페인은 아프리카와 네팔의 도서관 짓기 모금으로 이어졌고, 거교적 성금 모금 사업인 '매그놀리아 스토리'를 알리는 차원으로 확대됐다.

2010년 7월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1,600여 명의 사망자와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에 긴급구호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경희봉사단을 주축으로 11월 중순 파키스탄 대홍수 구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커피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국제 개발협력의 이해' 수강생들은 네팔 도서관 건립 기금을 모았다. 11월 하순 국제캠퍼스에서는 천안성결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북적북적 2010 프로젝트'를 공연하며 예코백, 노트, 버튼 배지 등을 판매해 아프리카 도서관 건립 기금을 마련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학생 기부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캠퍼스 청운관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로비에서 재학생 자원봉사자들과 대외협력처 직원들이 홍보와 함께 현장 모금 활동을 펼쳤다. 최소 기부 금액을 5,000원으로 정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부하고 기념품을 받는 과정을 통해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행사 기간 중 서울캠퍼스에서 89명, 국제캠퍼스에서 52명 등 모두 141명이 현장 기부에 참여했다.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경희, 꿈꾸는 학교

'경희, 꿈꾸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상담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경희, 꿈꾸는 학교는 미래문명원이 주최하고 회기동 주민센터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2010년 1월부터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생활과학대학에서 진행됐다. 재학생 멘토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양 과목을 무료로 가르치는 한편 특별활동과 1:1 상담을 실시했다.

2010년 1월부터 두 달 간 운영한 경희, 꿈꾸는 학교 1.5기에는 재학생 멘토 16명과 초·중등 학생 16명이 참여했다. 국어, 영어, 수학 및 토론 교실을 운영하고 특별활동으로 눈썰매장을 찾아가다.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2기에는 재학생 멘토 17명, 초·중등 학생 17명이 참여해 국어, 영어, 수학 외에 환경, 경제, 토론,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양 교실을 운영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열린 2.5기

에는 재학생 멘토 18명, 초·중등 학생 18명이 참가해 문학, 수학, 영어 교실을 여는 한편,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3기에는 멘토와 초·중등 학생 각각 16명이 참여해 영어 듣기, 말하기, 영문법, 수학 교실을 운영했다.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한 모델로 자리 잡은 경희, 꿈꾸는 학교는 대학생과 초·중등 학생이 함께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 지역주민의 중앙도서관 이용 합의서 체결

회기동 지역주민들이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도서관은 2010년 11월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회기동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서관을 개방했다.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은 지역주민들은 한 사람이 3권의 책을 14일 간 대출할 수 있으며, 시험 기간을 제외한 토·일요일과 방학 기간에 일반열람실 및 정보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1차로 주민 56명이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았다. 중앙도서관은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해피닷컴)에 이어 독서교실도 운영했다.

경희대학교는 녹지 비율이 높은 캠퍼스를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한 데 이어, 대학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대학의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 독거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 : 경희, 해피하우스

‘경희, 해피하우스’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봉사 활동이다. 회기동 주민센터와 협의회 재학생들이 회기동 독거 어르신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자서전 쓰기, 생활 지원, 말벗 활동, 특별활동 등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한 차례 독거 어르신을 방문했다. 벚꽃놀이에 초청하기도 하고, 가정의 달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했다. 9월에는 독거 어르신 방문 활동의 체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피하우스 1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거 어르신 방문 활동은 봉사자 팀과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 한 분이 결연을 맺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희, 해피하우스 1기는 아동가족학과를 중심으로 한 재학생 참가자 15명, 독거 어르신 5분으로 제한해 진행했다. 이 봉사 활동은 전공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독거 어르신을 보살피는 가운데 얻게 되는 가족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인간과 학문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 벽화 그리기 봉사단 : 해피아트

해피아트 벽화 봉사단은 미술대학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경희대학교의 재학생 봉사단이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회기동 일대의 주거 환경에 시각적 변



화를 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술 전공 학생들과 비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벽화 그리기 봉사단 해피아트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회기동 회기로 21가 길, 회기동 공중화장실, 회기동사무소 등 지역의 공공시설과 골목길에 벽화를 그렸다.

해피아트는 미래문명원과 회기동 주민센터의 협의에 따라 시행됐다. 총 42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공공기관(회기동 주민센터)과 공공시설(회기동 공중화장실)의 외벽과 골목길 4곳에 벽화를 그렸다. 해피아트는 회기동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중 핵심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됐다. 해피하우스의 경우처럼 전공과 연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기동 주민자치 학교 : 좋은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서울캠퍼스 주변 회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해 대학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미래문명원이 주관하고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회기동 주민자치학교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2010년 4~5월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연합회 소속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모두 6주차로 구성된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지니는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3동의 명물거리를 방문해 현장 학습을 하고 관련자들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학교는 지역 알기 및 자원 조사로 이루어진 외부 실습과 ‘동네 한바퀴’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강의 일정을 마쳤다. 회기동 주민자치학교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더 나은 지역공동체를 일궈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자리 잡았다.

#### 주민 컴퓨터교실 : 해피닷컴

해피닷컴은 경희대학교와 회기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이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10년 10월 회기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중앙도서관, 미래문명원이 협의를 시작했다. 11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도서관 개방 협약식을 가졌다.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12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재학생 자원봉사자 12명이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교육 4주, 문서 제작 4주 등 총 8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 어린이 독서교실

지역 내 어린이들이 대학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을 개방했다. 2011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회기동 인근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독서교실을 운영했다.

경희초, 청량초 학생 27명은 강사 3명의 안내를 받아 중앙도서관 내 사계아동문학문고와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한 데 이어 독서교실에 참여했다. 독서교실은 책날개 읽기, 집단 독서 치료, 시 창작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초등학생들이 독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교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해피닷컴)과 도서관 이용증 발급과 함께, 대학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2010 Peace BAR Festival



제29주년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2010 Peace BAR Festival이 지난해 11월 3~5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과 청운관에서 개최됐다. 중앙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은 국제 학술 회의와 미래문명포럼, 경희학생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 학술회의는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The Body and Civilization: Body Matters)'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모여 현대 문명과 몸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작은 몸'으로서의 인격체와 '큰 몸'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었다. 경희 구성원과 세계적 석학들이 '몸과 문명'을 주제로 서로 대화하고 탐구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지구 공동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했다. 학술회의는 몸과 철학, 몸과 기술, 몸과 예술, 몸과 문화, 몸과 생명 등 5개 세션 및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으며, 마크 존슨, 투 웨이밍, 정화열 등 세계적 석학이 참석했다. 2010 Peace BAR Festival에는 국내외 학자, 국내외 대학(원)생, 일반 참가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 실천인문학



실천인문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윤리의식을 높이면서 자기 삶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실천인문학은 대학의 연구·교육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문명원 실천인문학센터가 주관하는 실천인문학은 서울시 위탁 사업인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한국연구재단 선정 사업인 '경희대학교 시민인문학 강좌', '재소자를 위한 경희대학교 실천인문학 강좌' 등 세 가지이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구청 관련 14개 기관(강북



지역자활센터, 관악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광진 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 지역자활센터, 노원 지역자활센터, 성동 지역자활센터, 게스트하우스, 만나샘, 비전트레이닝센터, 열린여성센터, 강북구청, 노원구청, 마포구청, 성동구청), 경희대학교 심화반을 포함해 총 15개 강좌를 개설했다.

‘경희대학교 시민인문학 강좌’는 관악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경기광역시 자활지원센터, 노원 나눔의 집, 푸른시민연대,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5개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재소자를 위한 경희대학교 실천인문학 강좌’는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됐다.

문학, 글쓰기, 역사, 철학, 예술 등 정규 과목을 중심으로 총 24주를 한 학기로 구성했다. 명사 초청 특강 이외에도 창업 사례, 창업 전문인 강좌, 금융 재무 컨설팅 강좌 등도 제공했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역사 유적지 탐방, 문화예술 공연 관람, 수학여행 등을 진행했다. 강사진은 정규 강좌 강사 85명, 특강 강사 10명으로 운영했다. 입학식과 졸업식은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실천인문학 강좌는 수강생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며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대학은 실천인문학을 통해 상아탑 안에 머물던 인문학을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시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 재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 연해주 해외봉사단

2010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3박 14일 일정으로 재학생 40명이 인솔자 2명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일대 고려인 정착촌에서 자발적이고 전방위적인 봉사 활동을 펼쳤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봉사 주체로서 책임감과 성취감이 높았다. 또한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교류, 현장 활동 등 다각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노력봉사는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 등 정착촌 건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교육봉사는 고려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통해 진행됐다. 문화교류는 고려인 가정방문과 마을잔치, 현지 자매결연 대학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 학생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현장 활동은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의 항일 유적지와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고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연해주 해외봉사는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봉사 활동을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생들이 봉사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해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정착 가정의 원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 고려인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봉사 활동 이외에도 문화교류와 유적지 답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었다.

#### 베트남 하노이 해외봉사단

재학생 해외봉사단은 여름방학의 연해주 봉사 활동에 이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대



학과 택사초등학교에서 다각적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재학생 40명과 인솔자 2명 등 총 42명의 봉사단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박 15일 동안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교류, 현장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연해주 해외봉사의 경우처럼 베트남 해외봉사도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택사초등학교 도색 작업 등 시설 개보수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봉사와 함께, 하노이대학 한국어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택사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놀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 같은 교육봉사에 이어 하노이대학 한국어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하노이 시내와 인근 난민 지역을 답사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베트남 해외봉사는 학생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외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



'2010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는 Kyung Hee Volunteer Network가 주관한 공동 자원봉사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2007년부터 매년 12월 '네오르네상스 장학생회 프린티어'에서 진행해온 사랑의 몰래산타는 2010년부터 참가 단체가 늘었다. 경희봉사기획단, 네오르네상스 장학생회 프린티어, 경희 꿈꾸는 학교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 12월 24일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다문화 가정 40가구를 방문했다. 총 19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59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이벤트를 선보였다.

사랑의 몰래산타는 지역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학내 봉사단체와 개인이 함께 한 프로그램으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 경희-씨티그룹 NGO 인턴십 프로그램

NGO대학원은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8주 동안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진행된 제5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100명이 전국 80여 개 NGO에 파견돼 다양한 현장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참가 자격은 2010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NGO 활동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2~3학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학생들이 파견되는 NGO는 상근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 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전국 16개 광역 도·시에 소재하고 있



는 단체로 한정했다. 인턴십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월 7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제5기 NGO 인턴십은 2010년 12월 프로그램의 취지와 개요를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지역별 운영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참가 학생들은 2011년 1월 28일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3월 5일 수료식과 함께 우수 결과 보고서 시상, 프리젠테이션,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한편, 대학과 전국 NGO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과 NGO 간, 학생과 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



인종, 문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직접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에 파견했다.

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는 재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어울려 특정 지역에서 교육,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고고학 조사, 농업, 건축, 지역사회 개발 등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2~3주 동안 진행되는 워크캠프는 전 세계 청년들이 동참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성격도 갖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깊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2010년 4월 워크캠프 3기를 선발하고 7월에 하계 워크캠프에 파견했다. 총 51명이 독일, 프랑스, 그리스, 터키, 폴란드, 일본으로 파견됐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4기 총 47명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라오스 지역에서 열린 워크캠프에 참가했다.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워크캠프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생들과 교류협력하면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과 지구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

###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평화와 공영의 대안 문명을 모색하고 21세기 국제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2006년 이후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을 유엔 및 국제기구에 파견해 국제기구 업무를 습득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4월 선발 공고를 냈으며, 이에 따라 서류 심사를 거쳐 영어 논술과 면접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최종 대상자 7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UNDP, UN DESA, CoNGO, UN ESCAP 등에서 3~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희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학

생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경희봉사단 각종 사업 지원



서울캠퍼스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자치단체 '경희봉사단'의 활동을 연중 지원했다. 2010년 5월에는 서울캠퍼스와 회기동 일대에서 '경희봉사단 봉사 페스티벌' 사업을 도왔다. 이 페스티벌은 이웃, 가족, 친구, 어울림을 주제로 장애우가 운영하는 카페, 할아버지 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카페, 외국인 초청 전통차 카페, 커피특공대와 함께 하는 공정무역 커피 카페 등을 운영했다. 기획단 28명, 봉사자 173명, 기관 관계자 100명이 카페를 마련했고, 재학생과 주민 800명이 참여했다.

2010년 10월 29일 노천극장에서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 교직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총학생회가 참가해 직접 담근 김장을 인근 소외계층에 기증에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추석맞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도 진행됐다. 청운관 앞 녹원과 회기동 일대에서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이 송편을 빚어 인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2010년 9월 3~5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설립을 앞두고 경희봉사단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경희봉사단 기획단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성과 나눔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동참해 문화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 국내외 의료봉사



### 아이티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경희대학교는 대지진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의사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2010년 2월 17일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진 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급파했다. 주로 정형외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경희대학교 의료지원단은 경찰병원 팀과 함께 3차 파견 봉사단에 소속돼 아이티공화국 포르투프랑스에서 11일 동안 진료 활동을 전개했다. 아이티에 도착한 첫날 86명을 진료했고, 이후 일주일 동안 총 1,611명을 치료했다.

의료지원단은 캐나다가 지어준 '평화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63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지원했다. 포르투프랑스 외곽지역을 방문해 여진 피해 환자와 산부인과 진료를 했으며, 우기에 창궐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아이티 의대생들을 교육시켜 의료봉사단이 돌아간 뒤에도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티 긴급 의료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긴급구호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는 경희의 이념을 실행에 옮겼다.



### 연평도 주민 대상 의료 지원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지역주민들이 인천으로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집단 숙식하고 있던 연평도 주민 300여 명 중 일부에서는 포격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발생했고, 단체생활에 따른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방병원은 긴급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주 2회 오후 시간대에 의사와 한의사, 간호 인력이 공동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참여했고, 한방병원에서는 침과과와 한방재활의학과가 진료에 나섰다. 약제본부에서는 의약품과 약사를 지원했으며,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현장에서 무료로 지급했다. 운영지원본부는 차량과 비품, 의료 소모품 등을 지원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와 자체 제작 한약 등으로 연평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국내외 의료봉사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은 국내외 어느 지역이든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찾아가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6년 의사, 간호사, 행정직, 기능직 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등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희 인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10년의 해외 의료봉사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메들린 지역에서 진행됐다. 14명의 의료봉사단이 파견돼 현지 주민 총 718명을 진료했다. 국내에서는 4월 17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 34명의 의료봉사단이 지역주민 441명을 진료했고, 5월 15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서 29명의 봉사단이 주민 380명을 진료했다. 7월 16~18일에는 37명의 의료진이 전남 여주시 남면을 찾아가 주민 331명을 진료했다. 10월 9일에는 25명의 의료진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주민 357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의료 소외지역에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의 무료 의료봉사 혜택을 받은 주민은 총 2,207명(국내 1,489명)에 달한다.

## 의과학

### 의료기관 비전 수립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공통의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2010년 7월 경희 전 구성원과 내외 귀빈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서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두 의료기관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과 의료기관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거듭나는 로드맵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비전 설정 사업은 2009년 7월에 시작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의료기관 내부의 전담 기구가 공동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수렴하고 실증적 조사를 거쳐 미션과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확고한 주인의식 아래 소통과 교류를 일상화하는 내부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창의적 도전으로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 의학의 진취적 미래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관, 융합 연구로 신의학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 배려와 존중, 탁월함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소외된 세계 시민을 섬기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봉사기관, 구성원의 성취와 긍지를 고양하는 창조적인 대학병원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의료기관 조직 체제도 새롭게 설계했다. 경희대학교의 모든 의료기관은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통합됐고 '동서신의학병원'의 명칭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변경했다.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에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 6개 병원이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 구성원이 의료기관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소통과 창조의 새로운 병원 문화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 의과학연구원



#### 의과학연구원 중앙실험실 개소

2010년 6월 의과학연구원 중앙실험실이 문을 열었다. 의과학연구원 출범과 함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고, 임상 교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공간을 확충한 것이다. 한방병원 동관 B 9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해 대학과 의료기관의 주요 보직자와 중앙실험실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의과학연구원은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7월 기존의 연구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약물, 단백질, 펩타이드, 대사물질 및 천연물 분석기 등 첨단 연구 기자재를 확충했다. 2010년 7월 연구자 30팀이 입주를 완료했다. 중앙실험실은 연구 기자재 관리와 실험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임상 교수들의 연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의과학연구원 중앙실험실은 진료, 연구, 교육이 통합된 형태로 임상과 기초 간의 연계 연



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상 연구를 양적·질적으로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의과학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실험실은 중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의생명과학 연구 결과는 실용화, 산업화 단계로 연계되어 '의과학 경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게 된다.

### 의과학연구원 검체은행 설립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의과학연구원에 검체은행을 설립했다. 의과학연구원은 다국적 제약회사 (주)사노피-아벤티스와 3년 간 총 5억 원 규모로 경희의료원 내에 소화기계 질환과 대사 질환, 암 특화 검체은행을 설립하고 약물유전체학과 단백질체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검체은행 설립 공간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검체은행은 한국인에게 유병률이 높은 소화기계 질환과 대사 질환, 암을 중심으로 각 질환군의 특성에 따라 혈액, DNA 조직을 수집, 관리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검체은행을 통해 질병의 진행과 치료 과정을 보다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맞춤 치료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체은행에 연구실 기능을 추가하고, 신설 예정인 유전자은행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 신약 개발 등의 연구 성과가 크게 높아져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희의료원 국가고객만족도(NCSI) 3위



경희의료원이 2010년도 병원 서비스업 부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결과, 전국 3위를 달성했다. 경희의료원은 1998년 조사에 참여한 이래 2005년 종합 1위를 하는 등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2010년 조사는 248개 기업, 소비자 6만 5,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병원 서비스 부문은 경희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7개의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총 1,750명에게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희의료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1.4% 향상됐다. 전년 대비 고객 기대 수준은 6.3%가 올라 경희의료원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서비스 부문에서 공동 1위인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색 있는 고객 친화적 진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경희의료원 교류협력실 개설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원의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0년 5월 교류협력실을 개설했다. 2010년 상반기 경희의료원의 외국인 환자 치료 건수는 약 3,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교류협력실은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 외국 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해 경희의료원의 선진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의료원에 해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진료 동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는 등 해외 환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기 위한 실용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5년 내에 연 2만 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전담하는 국제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에는 국제 진료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진 연수와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교류협력실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대학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해 경희의료원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턱·얼굴 급속교정센터 개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가 협의 진료센터를 개설해 환자의 턱·얼굴(악안면) 급속 교정을 시행하고 있다. 협의 진료를 관장하는 '악안면 급속교정센터'는 원스톱 급속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2010년 9월 진료 형태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치과병원 2층에 급속교정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진료를 개시했다. 초진 상담과 분석, 교정, 수술, 수술 후 처치, 치료 종결까지 체계화된 협의 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희의료원,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판정

경희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 과정, 결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구조 부문의 평가 항목은 인력, 장비, 시설 등과 관련된 총 7개 항목이고, 과정 부문은 혈액투석 적절도, 혈관 관리, 정기검사 등 총 5개 항목, 결과 부문은 빈혈 관리, 혈압 검사, 무기질 관리 등 총 6개 항목이다.

혈액투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혈액투석은 환자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심장 질환, 감염, 혈관 질환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률도 높다. 하지만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운영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혈액투석 실시 기관의 질적인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격리 혈액투석기와 응급 장비를 보유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혈액투석 적절도와 동정맥류협착증에 대한 정맥압 측정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또한 혈압, 빈혈, 철분제, 무기질 등 총족을 위한 지표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통보된 2009년 혈액투석 적



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2.8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 경희의료원, 2010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0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경희의료원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응급실을 경유한 급성기 뇌졸중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입원한 경우이다.

2010년 평가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환자 상태 사정, 초기 진단, 초기 치료, 2차 예방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환자 상태 사정은 흡연력, 신경학적 검사 실시율,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을 포함하며, 초기 진단은 뇌영상 검사 실시율, 지질 검사 실시율을 평가한다. 초기 치료는 t-PA 투여 고려율, 조기 재활치료 고려율, 항혈전제 투여율, 2차 예방은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 등을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정 지표 점수 외에도 전문인력 구성 등을 종합해 결과를 산정한다.

경희의료원은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진료과에서 회람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경희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으로 종합 결과 1등급을 받았고, 구조지표(전문인력 구성지표)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희의료원이 뇌졸중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균형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조기 사망과 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동서협진센터 10주년 기념 제5회 동서협진 국제 심포지엄



동서협진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2010년 10월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5회를 맞이한 동서협진 국제 심포지엄은 양·한방 협진과 관련된 각종 임상 성공사례와 주제 발표에 이어, 동서협진센터의 국제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미국 UCLA의 동서협진 교육 프로그램과 대만, 중국 등의 임상 적용 성공사례가 보고됐고,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임상 증례에 대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과대학 본과 3년생들의 동서협진의 미래상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만 중의대학과 정기적으로 동서협진 관련 학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동서협진센터는 이 같은 국제 학술대회를 전 세계 의대, 한의대생들에게 널리 알려 ‘경희 의과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협진 시스템 활성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양·한방 원스톱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제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협진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2010년 8월 협진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 협진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협진 성과, 협진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스톱 협진 시스템이 활성화하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 프로토콜이 활발하게 개발됐으며, 새로운 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 연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협진 진료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환자 만족도와 협진 프로그램의 한계성을 조사하고 있다.

협진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가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선형가속기 도입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함께 3대 암 치료법 중 하나로 꼽히는 방사선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형가속기(LINAC)를 도입했다. 선형가속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하 1층 공간을 개보수했으며,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암 진료 상담실 환경을 개선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래피디아크(Rapid Arc)를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해 협력 병원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한편, 방사선 치료 홍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래피디아크는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 장비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암 세포를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 시간이 토모테라피보다 짧은 21세기형 암 치료 장비로 평가된다.

래피디아크는 환자 주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을 3차원 계산법으로 인식해 1회 회전하는 동안 치료를 수행하므로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 정상 장기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래피디아크는 수술 후 암의 재발 방지를 돕기도 하고, 전이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적용되기도 한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다학제간 암 치료 시스템 구축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암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학제간 시스템(multidisciplinary system)을 구축했다.

다학제간 시스템의 구축은 2009년 2월 협진진료처 통합암센터를 부속 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와 한방병원 암센터로 재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암 진료 활성화를 위한 TF가 구성됐다. 2010년 7월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하고 LINAC, CT-simulator 등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항암 치료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9월 진료를 개시하면서 '경희 암 클린데이' 행사를 개최해 내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새로운 암 진료 시스템을 소개했다.

다학제간 암 치료 시스템은 PET-CT, MRI, CT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경희의료원 전문 진료센터 개설

#### 암센터 설립 추진

경희의료원은 중증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상급 종합병원의 위상을 유지하고, 연구 중심 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될 암센터는 백화점식 암센터를 지양하



고, 다빈도 암,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암 전문 센터를 지향하고 있어 소화기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의료원은 암센터의 단계별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0년~2013년을 준비기로, 2014년~2016년을 도약기로, 2017년~2020년을 안정기로 정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응급의료센터, 2층에는 간암, 대장암, 위암, 협진실, 코디네이터실, 3층에는 유방암, 폐암, 혈액암, 부인암 등 기타 협진실, 코디네이터실 등을 배치했다. 5층에는 외래 항암주사실, 교육실, 상담실, 암센터 연구간호사 사무실, 6층에는 IRB사무실, IRB연구간호사 사무실, 다학제 회의실, 암센터장실, 행정실, 탈의실, 7층에는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병동, 임상시험 상담실, 보직자실, 8층에는 중앙혈액내과 병실, 단기 병동을 배치했다.

### 심장혈관센터 추진

경희의료원은 심혈관계 고난이도 중증 질환의 새로운 진료 모델을 제시하면서 심장·혈관 전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심장혈관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2011년 6월, 현재의 내과 외래 위치에 관련 과와 검사실을 이전해 임시 오픈한 후 2012년 12월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경희의료원은 심장혈관센터를 중심으로 심장·혈관 분야를 중점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심혈관계 질환 관련 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합 조직을 구성하고, 중재시술팀, 심부전팀, 부정맥팀, 건진합병증팀 등 전문 질환팀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뇌신경센터 추진

경희의료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경계 질환 치료를 통합한 뇌신경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뇌신경계 질환의 대부분은 노인층에서 발병하고 있다. 특히 뇌신경 질환 분야는 타 질환과 달리 한방 치료가 효과적이다. 뇌신경센터는 2011년 5월 임시 오픈한 후, 2012년 12월 심혈관센터와 함께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협의를 거쳐 의료진 간 공동진단과 공동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 질환과 초급성 뇌졸중 환자의 원스톱 통합 진료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2011년 5월, 현재의 신경과·신경외과 외래 공간에 뇌혈관센터를 임시 오픈할 예정이다.

급성 뇌혈관센터는 '발병 후 3시간 이내 처치'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래 및 검사실 통합 진료를 통한 환자 중심의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환자 만족도를 증대시키게 된다.

# 세계와 경희

경희는 교육·연구·실천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를 구축, 전 세계와 소통하며 '학문과 평화'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해외 연수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해 '글로벌 경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 Global Collaborative 2010 Summer Program



Global Collaborative 2010 Summer Program(이하 GC 2010)이 2010년 7월 5일부터 4주에 걸쳐 진행됐다. 'Global Governance and East Asian Civiliza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16개의 강의 가 개설돼 국내외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Eminent Scholar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해외 석 학이 특별강사로 초빙됐고, 34개국에서 총 416명의 학생(해외 대학생 231명)이 참여했다.

2010년 5년째를 맞은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2006년 경희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Penn-Kyung Hee Collaborative 여름학기에서 시작됐 으며, 2008년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내외 대학생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GC 2010은 정규 강의 외에도 Buddy Night, Talent Show, 한국 영화의 밤, 태권도 수업, 한류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과 전주 한옥마을 방문, DMZ 견학, 서울 시내 투어 등의 주말여행, 한국정치학회 세미나, 교수회의와 같은 특별기획으로 짜여졌다. 교내 타 프로그램과 연계한 강의도 이어졌다. 입학 사정관계 특별전형에 관한 해외 석학의 특강과 취업진로처 HR 세미나, Open CourseWare 강의 등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GC 2010에 해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GC 프로그 램 거버넌스팀의 역할이 컸다. 양 캠퍼스 부총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GC 프로그램 거버넌스팀을 중심으로 해외 홍보, 교수 초빙, 계약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GC 2010의 성과는 참여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학생 93%가 우수 한 교수진, 수준 높은 강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만족했다며 동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9년에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는 동료들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이 85.6%였다. GC 2010은 각종 대중매체에 30회 이상 노출되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 Global Collaborative Abroad

전공별 특성화 교육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Global Collaborative Abroad(해외 집중 전공 연수)가 본격 시행됐다. 경희대학교 교수와 외국 대학 소속 교수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Global Collaborative Abroad에는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9개 국 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Global Collaborative Abroad 2010은 3월, 전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4월에 프 로그램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과와 함께 학생을 파견할 해외 대학을 선정했다. 이어 전공별 오리엔테이션과 4주간의 외국어 교육, 2주간의 전공 교육을 실시했다. 7월부터 4주 일정 의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언론정보학과에서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에 10 명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호텔관광학과에서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 30명, 프랑스어 학과에서 프랑스 Universite de Limoges에 15명,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 프랑스 Ecole Polytechnique에 35명, 화학과/화학공학과에서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 40명을 파



견했다. 9월부터는 4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역학부에서 중국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에 10명, 영어학부에서 벨기에 Leuven Education College에 7명, 국제학과에서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Washington Center와 네덜란드 Maastricht University에 총 18명을 파견했다.

이어 12월부터 4주 과정으로 주거환경학과에서 홍콩 University of Hong Kong에 32명을, 2011년 1월부터 4주 과정으로 정치외교학과에서 영국 런던의 King's College에 20명, 간호학과에서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 10명, 응용화학에서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에 20명, 기계공학과에서 미국 San Diego State University에 24명, 토목공학과에서 미국 Rutgers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에 20명, 의류디자인학과에서 일본 Nara Women's University에 10명을 각각 파견했다.

Global Collaborative Abroad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강좌를 개설하고,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효과가 높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에 대한 K-CESA 글로벌 역량 지수 평가와 함께 전공 연수 학점을 부여했다. 전공별 단기 해외 파견 연수는 학생과 교수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Global Studio Network(GSN)



교육·연구·문화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구적 차원의 시민운동이 참여하는 열린 커뮤니티를 실현해 '학문과 평화'의 비전을 구현하는 Global Studio Network(GSN)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콘텐츠 개발 사업을 비롯,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가 협력하는 사업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GSN 해외 현지 스튜디오를 설립해 교육·연구·실천의 전 지구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2009년에는 워싱턴과 도쿄, 파리, 베이징 등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방송국 구축과 함께 기획 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했다.

2010년 6월 GSN 특강이 실시됐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미국과 프랑스 대학에서 진행된 해외 집중 전공 연수(Global Collaborative Abroad)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으며, Global Collaborative 2010 Summer Program의 강의를 촬영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9~11월에는 후마니타스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동영상으로 편집해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GSN은 국제캠퍼스에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 화상회의와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강의 및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 2010년 국제학부 주관으로 이탈리아 유럽대학원대학교(EUI)의 프리드리히 크라토키빌 교수가 진행한 화상강의는 GSN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국제교류 사업도 활발해지





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평화포럼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으며, 뉴욕대 (NYU)의 멀티미디어 공연예술 프로그램인 IMPACT에 참가해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GSN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동시에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지역 스튜디오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뉴욕, 도쿄, 베이징에 이어 방콕에도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SN은 전 세계의 교육 연구 문화 실천의 거점 도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전 지구적 학술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시민이 '학문과 평화'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복수학위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학위제는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복수학위 운영을 요청하는 학과들과 협의를 거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들이다. The University of Nottingham(영국), University of Houston(미국), Thompson Rivers University(캐나다), Ecole Polytechnique(프랑스),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중국), Rits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Mejiro University,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일본), Chinese Culture University(대만),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러시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키르기스스탄),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World Languages(카자흐스탄).

지난 2007년 복수학위제 파견 학생 수는 서울캠퍼스 5명, 국제캠퍼스 1명이었고 초청 학생 수는 국제캠퍼스 6명이었다. 2008년에는 파견 학생이 서울 8명, 국제 4명이었고 초청 학생은 서울 1명, 국제 6명이었다. 2009년 파견 학생은 서울 7명, 국제 1명이었으며 초청 학생은 국제 6명이었다. 2010년에는 파견 학생이 국제 2명, 초청 학생은 국제 6명이었다.

###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CISS)가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입시 업무와 학업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외국인 학생과 교원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한다.

2008년 3월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에서 업무를 시작한 외국인지원센터는 같은 해 11월 서울캠퍼스 본관 3층으로 이전해 국제교류과와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외국인 입시 업무는 물론, 해외 유학 박람회 참가, 외국인 학생 장학제도, 비자 및 체류 관리, 기숙사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



공한다. 외국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생활 안내 책자도 제작, 배포한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2009년도 1학기 학부 외국인 입학생은 서울캠퍼스 451명, 국제캠퍼스 10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서울 487명, 국제 17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인 구성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부 건물 임차를 통한 외국인 기숙사 시설 확충, 의료보험의 의무 가입 실시, 단과대학과 외국인 학생의 소통 지원을 위한 상담예약제 운영 등 외국인 학생과 교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고 지원 외국인 장학생 수를 늘리고, 외국인을 위한 교내 장학제도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10년 외국인지원센터는 I-House 4를 마련해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를 확충했다. 또 성적 경고 제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적 경고를 받은 외국인 학생의 자국 보호자에게 자녀의 성적 경고 사실을 통보했으며, 성적 경고자를 대상으로 학업과 대학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 특강, 취업 한국어 경연대회, 기관 토폴 등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졸업생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월 외국인지원센터가 새로운 공간(신축 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 자체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유학생 교육 지원



### 학습 부진 학생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교양학부 유학생교육지원팀은 학습이 부진한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해 중도 탈락하는 유학생 수를 줄이고 있다. 교양과정을 수강하는 유학생 1, 2학년 중 학습 부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급은 15명이고, 학급당 전담 교수 1명과 조교 2명을 배정해 주 1회 3시간 방과 후 학습을 진행한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맞춤형 수업은 발표와 토론 방법, 보고서 작성법, 답안지 작성법, 정보 검색 활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개별 면담을 병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 교수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한다.

### 유학생을 위한 학습 특강

신학기를 시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학생 선후배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강 강사는 각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교수



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특강 강사는 총 10명이다.

유학생을 위한 학습 특강은 발표·과제·시험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수강 전략, 낯설고 불편한 유학생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선배로서의 조언, 그리고 졸업 후 진로와 취업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유학생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과 함께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 유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사 안내

경희대학교는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학사 일정과 유학생 전용 교과목, 교·강사 소개 외에도 유학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해 발송하는 것이다. 가정통신문은 교양과정을 수강하는 1, 2학년 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0부 정도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유학생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유학생은 대학생활에 조기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경희대학교는 외국인 재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국적을 다양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특별 추천 장학생과 재외동포 재단 장학생을 확대 선발하는 동시에, 학업 장려 장학과 입시 장학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재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입시 장학, 학업 장려 장학, 특별 추천 장학(4년), 조건부 한국어 강좌 학비 감면 장학 등 '교비 장학'이다. 둘째는 한국 정부 초청 장학, GKS 자비 유학생 장학, 해외 정부 파견 장학 등 '국외 장학'이다. 셋째는 재외동포재단 장학, 삼성꿈 장학 등의 '교외 장학'이다. 특별히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 초청 장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초청 장학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 800명의 외국인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국제캠퍼스에서는 517명의 외국인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 같은 장학 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 첫 입학한 6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2011년 2월 현재까지 총 43명(서울캠퍼스 35명, 국제캠퍼스 8명)의 학부 장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들 43명에게는 국고지원금으로 등록금 전액과 매월 80만 원의 생활비, 매월 1만 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교재 구입 보조금으로 43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했으며,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에 참가한 13명에게 1인당 46만 원을 지급했다. 여학연수 신청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



다. 지원금 외에도 대학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맞춤형 기숙사와 상시 상담을 제공한다.

매년 실시되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11년부터 시행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문화체험 장학금을 마련해 43명에게 1인당 28만 원씩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면서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주를 이룬 초기와 달리, 현재는 외국인 학부 장학생의 국적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2011년 2월 16일에는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이 사업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에 경희대학교를 홍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여러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교비 지원 직원 해외 파견 및 해외 지역 문화탐방



직원들에게 국제화 마인드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비 지원 해외 파견 및 해외 지역 문화탐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 '해외 파견' 사업은 업무상 외국에서 연구가 필요할 경우, 선발을 통해 해외 자매대학을 비롯한 외국 대학과 해당 기관에 2개월간 파견하는 제도이다. 연구비와 항공료 보조금을 지원하며, 파견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해외 지역 문화탐방' 사업은 업무와 관련된 해외 지역의 문화체험이나 대학을 견학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항공료 보조금과 연구비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0년에는 교비 지원 해외 파견의 경우 지원자가 없었고, 해외 지역 문화탐방에는 서울캠퍼스 5명, 국제캠퍼스 3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발됐다.

### 교원 해외 학술 활동 보조금 지원

교원이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해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자는 매년 각 캠퍼스별로 선발한다. 대상 기간 내에 국제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했으나 동일 사안으로 교내외 타 연구비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전임교원(임상교원 제외)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지원 보조 금액은 나라마다 차등을 두었다.

2010년 1학기에 서울캠퍼스는 10명을 선발, 국제캠퍼스는 12명을 선발해 1,300만 원을 지원했다.

### 일본어권 학점 교류 및 복수학위 학생 선발

일본어권 학점 교류 및 복수학위 학생 선발 사업을 통해 일본 지역 대학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일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학술과 문화에 걸친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설해 재학생들에게 국제적 소양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환학생 60여 명을 파견하거나 초청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체험 연수단 130여 명을 초청했으며, 일본어 및 일본문화 체험 연수단 70여 명을 파견했다. 문화·스포츠 교류 프로그램도 시행됐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서도부(書道部) 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해 경희대 서예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 작품전을 개최했다. 여름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체험 연수단 130명이 경희대학교를 찾았다. 일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는 구성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연수단 방문 사업은 장기 교환학생 및 대학원 진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간 장기 교환학생으로 방문한 일본 학생이 2011년 경희대학교의 관광 학부로 재입학한 사례가 있다.

경희대학교의 일본 대학 교류 사업은 국내 타 대학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연세대, 한양대 등은 일본 유학생 유치에 위한 한 방안으로 경희의 일본 대학 교류 사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 영어권 파견 특별 교환학생 장학금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해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교환학생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학생이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 자매대학에 일정 기간 파견되어 수강하는 제도로, 파견 학생은 파견 기간 동안 등록금을 경희대학교와 자매 대학에 납부하고 소정의 장학금(1인당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공고 기간은 3월과 9월이며, 파견 기간은 한 학기이다.

2010년 특별 교환학생 장학 사업을 통해 1학기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등 10개 대학에 59명의 학생을 파견했고, 2학기에는 미국 Black Hills State University 등의 대학에 58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대학에서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학생들과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국제화 감각과 어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특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정규 학점을 이수하고, 귀국 후 학점을 인정받아 정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교비 지원 교원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비 지원 교원 해외 파견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자매대학을 비롯한 외국 대학에 교원을 파견하는 이 사업은 매학기 각 캠퍼스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파견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다.

연구년 선정자를 포함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신청할 수 있다. 연구년이나 6개월 이상 해외 파견을 마친 전임교원은 그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학술연구의 경우 교원 교비 해외 파견에 관한 규정(안)에 의거, 연구비와 항공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제교류 활성화 연구는 교원 교비 해외 파견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항공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0년에는 서울캠퍼스에서 1학기 4명, 2학기 2명, 국제캠퍼스에서 1학기 2명, 2학기 2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University of Washington 하계 연수단 방문 지원



2010년 8월 22일부터 9일간 University of Washington 하계 연수단 방문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이 사업은 경희대학교 학생과 University of Washington 학생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양교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2009년 12월의 담당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기획된 이 사업을 통해 총 16명이 경희대학교를 방문했다. 제프리 킴 박사와 매트 섉스턴 박사가 인솔 교수로 동참했다.

방문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특강을 열었고, 교외에서는 한국문화 체험과 기업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하계 연수단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현재 양교는 구체적인 교류협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계 연수단 방문 프로그램을 2011년에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국제화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진하고 있다.

## 2010학년도 문과대학 하계 전공연수 프로그램

문과대학은 국제화 추진과 인문학 관련 전공 분야 학술 탐방, 그리고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모색하기 위해 하계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수 프로그램과 동시에 중국 연변대학교와의 교류가 추진됐다. 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총 86명이 참가했다. 중국 연변대학의 현지 교수 특강, 대학 시설 견학, 사학과 교수가 인솔한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0 하계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 74명 전원은 1학점을 인정받았다. 참가자들은 소통과 창조의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문과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었다.

## KHLS Study Abroad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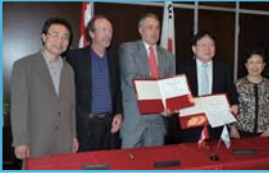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유명 로펌과 로스쿨을 견학하고 수업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2월 홍콩대와 일본 주오대 로스쿨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1학점을 부여한다.

국제화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국제적 기업 경영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진취적 기업법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접목시킨 국제교류 사업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가운데 하나이다.

2010년 2월 3~8일 재학생 4명이 홍콩대학의 국제 기업법무 특강을 듣고 법원, 변호사회, 국제 로펌 등을 견학했다. 2월 14~20일에는 재학생 9명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일본법과 국제 기업법무 특강을 수강한 데 이어, 일본의 법원, 변호사회, 국제 로펌을 탐방했다. 그 후 2010년 8월에 3명, 2011년 2월에 4명의 학생이 각각 일본 주오대와 홍콩대 로스쿨의 특강과 현지 로펌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호텔관광대학, 톰슨리버스대학과 복수학위 MOU 체결



호텔관광대학이 글로벌 시대 관광 분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미국 휴스턴대학과 2+2 복수학위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10년 8월 캐나다 톰슨리버스대학과 복수학위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캠룹에 위치한 톰슨리버스대학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유학한 1,200명의 학생이 10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양교는 호텔경영, 관광경영, 컨벤션경영 전공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11년 8월에 첫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다. 첫 학기에 선발된 학생 중 2명은 한 학기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다. 캐나다 톰슨리버스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재학생이 단기간에 2개의 학위를 받는 동시에, 국제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외국인 전용 열람실 개설




2010년 9월 15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에 외국인 전용 열람실이 개설됐다. 교내 소수자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을 재구성했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자료를 선별하고 재배치해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8월에 공간 재구성을 마쳤고, 서가와 집기를 이동하고, 기존 자료를 재배치했다. 이어 전용 컴퓨터 2대(영어, 한국어), 열람석 84석, 소파 등을 마련하고, 외국인을 위한 자료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자료를 비치한 후 외국인 전용 열람실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내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 창조와 도약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연구·실천의 성과를 뒷받침할 전문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 전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 및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구성원 간의 공감과 화합 속에서 창조와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 행정

### 자율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자율운영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와 업무 등 제반 사항을 개선하는 자율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속된다. 예산의 편성과 운영, 인력 관리와 대학 감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대학본부와 자율운영 단위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역동적인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0년 초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율운영 안내 책자를 배부했고, 연말에는 단과대학에 부서별 이관 업무를 종합한 매뉴얼을 배부했다. 2011년 1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책정 기준을 개선했다.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4개 군으로 구분하고, 급여를 책정하거나 재계약할 때 경력과 학력 등을 반영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역동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캠퍼스 부총장과 학장, 학과장까지 참여하는 학기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업무 이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돕기 위해 대학(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활성화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이관 부서 직원이 강사가 되어 학사, 교무, 연구, 예산, 비품 관리, 국제교류, 노무 관리 등 7개 분야의 직무에 대해 대학(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전공 지도교수의 명칭을 학과장으로 변경하고, 학부와 일반대학원 겸직 학과장의 보직수당을 인상하는 등 학과장 지원 방안을 개선했다. 또 총장이 선임하던 학과장 등 선임 절차를 개선해 학(원)장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단과대학 평가 항목도 개선했다. 교육과정 검토와 기여도 평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O&P Review(대학 자체 평가)에 변화를 주었다. 학부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과정 품질 평가'와 단과대학의 자율운영이 대학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능하는 '정성적 평가'도 신설했다. 정성적 평가는 리더십, 목표 달성 계획, 학생 만족도, 인적 자원 관리, 절대 기여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대학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단위기관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도 개선했다. 본예산과 연계해 발전계획 수립 일정을 마련하고, 자체 환경 분석과 사례조사 항목,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간소화했으며, 발전계획과 사업 예산제도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캠퍼스별 예산제도를 '통합 예산제도'로 전환해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또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개선해 예산을 배정할 때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했으며, 수입 예산을 통합하고 지출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 또한 학사 전담직 예산을 대학본부에 편성해 본부 예산과 자율운영 예산을 명확히 하는 등 대학(원)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을 보완했다.

### 전문행정 교육훈련 체계

전문행정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를 갖춤으로써 자율운영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자율운영 관련 직무 경험자를 직무강사로 양성해 자율운영 부서와 일반 행정부



서의 직무교육은 물론 신입 직원 직무교육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2010년 7~8월 실시한 제1기 직무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캠퍼스 15명, 국제캠퍼스 13명의 직무 강사를 선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사, 교무, 연구, 예산, 비품 관리, 국제교류, 노무 관리, 입학, 평가, 법무, 회계, 취업, 정보 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대한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11~12월 제2기 직무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캠퍼스 12명, 국제캠퍼스 12명을 선발해 발전 전략, 평가, 감사, 총무, 회계, 장학, 대외협력, 취업, 노무 관리, 교무, 도서관, 장학, 단과대학, 정보 서비스, 국제교류, 연구, 학사, 고객 만족 등 18개 부문에 대한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2010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도 실시했다. 12월 27일부터 4일 간 15개 분야 직무강사가 경희정신을 비롯해, 회계, 노무, 총무, 발전 방향, 예산, 감사, 평가, 비품 관리, 학사, 교무, 연구, 국제교류, 대외협력, 취업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전문행정 교육훈련은 자율운영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원활한 행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직무강사 양성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계기가 됐다.

## Organization & Program Review

Organization & Program(O&P) Review를 시행해, 단위부서의 업무 성과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166개 단위부서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 구성원 만족도 평가, 교육과정 품질 평가(단과대학만 해당), 기여도 평가를 실시해 자율운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O&P Review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8월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아울러 기준을 설정했다. 9월 교육과정 품질 평가와 기여도 평가지표를 확정해 편람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10월 피평가 부서의 1단계 지표 값을 비롯해 교육과정 품질 평가와 기여도 평가 설문을 입력했으며, 평가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11월 평가단 평가가 실시됐고, 12월 평가 결과 중간 보고에 이어 피평가 부서의 결과 확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2011년 1월 평가단 간담회를 개최한 뒤 O&P Review가 최종 보고됐다.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중점지표(O&P 총괄위원회 선정)+자율지표(피평가 부서 선정) 평가를 실시했고, 2단계에서는 교육과정 품질 평가(학과)와 기여도 평가, 3단계에서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구성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다.

1단계 평가의 중점지표는 정량 또는 정성지표로 평가한다. 정량지표의 경우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을, 전년 설정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 해당 연도 실적 대비 목표 신장률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정성지표는 피평가 부서에서 실적, 문제점 도출, 개선 노력 등을 기술하고 정성평가단이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율지표는 피평가 부서 재량에 따라 정량, 정성 또는 정량 기반 정성지표로 제시하며, 정량지표는 중점지표 평가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정성 및 정량 기반 정성지표는 1단계

정성평가단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2단계의 교육과정 품질 평가는 교육과정의 국제화, 실용과목 운영, 전임교수에 의한 전공교과 강의 담당 비율, 수업 집단의 규모, 강의계획서 작성 현황, 강의평가 현황, 교육과정 개선 활동 등에 대해 학과 교육과정의 경쟁력 측정을 위한 7대 지표를 선정하고, 교육학 전공 및 보직 경험 교수로 구성된 교육과정 품질평가단이 항목별 기술 내용과 정량 실적을 고려해 평가했다.

3단계 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교육 운영, 학사 진행, 학사 지원,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록금 등 전반에 걸쳐 학생 만족도를 평가하고,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고유 기능에 대한 만족도와 행정의 신속성, 친절성, 정확성, 전문성, 협조성 등을 조사해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만족도를 평가했다.

O&P Review를 통해 자율운영 제도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물론, 발전계획 추진 성과,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단과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중앙부서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

## 학생 만족도 제고(KSSI) 사업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확보해 학생 만족도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학생 만족도 제고(KSSI) 사업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고, 소통과 창조 의 대학문화를 조성해 대내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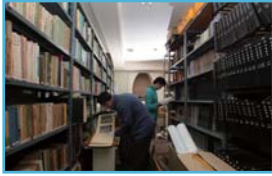
2010년 1월 KSSI TF를 구성하고 실험실습과 기자재, 학사 관리 및 행정 서비스, 교과과정, 취업 지원, 학생 편의시설, 교·강사, 학생 문화 지원 등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7대 선결 과제를 선정했다. 3월 단과대학 전산시설을 점검했으며, 7대 선결 과제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학생 만족도 사업 실천 방안과 팀별 추진 사업에 대해 총학생회와 〈대학주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KSSI 팀별 세부 추진 프로그램 총 28개를 제안했다. 프로그램에 착수한 후에는 매월 TF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전과 후의 사진 비교를 통해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8월 KSSI 사업을 홍보하는 블로그를 제작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는 학생 대상으로 대학 발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후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10월 사업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8~10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학생 만족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 경희기록관 설립

경희학원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희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양하고, 책임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경희기록관을 설립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간 경희기록관 설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3일 경희기록관을 개관했다. 경희학원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적 성과, 사회봉사 활동을 입증하는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 전시,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s)



를 구축한 것이다.

2010년 9월 경희기록관 신설에 따라 처무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구원 발령에 이어 11월 경희기록관 규정을 제정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서울·국제·광릉 3개 캠퍼스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기록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희기록관은 대학행정 기록물을 비롯해 교원, 학생, 직원, 동문 관련 기록물, 그리고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기관의 기록물도 수집해 이를 정리·보존할 예정이다. 또 교사(校史)를 편찬하고, 경희 역사와 관련된 전시·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록물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 온라인 증명 발급 서비스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미 시행 중인 학생 인터넷 증명에 이어 2010년 3월부터 교직원 증명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가입 후 온라인 학생 증명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졸업, 성적, 재학, 제적, 졸업 예정, 교육비 납입, 장학금 수혜 등에 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직원 증명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통해 이용하도록 했다. 교내에서 접속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외부에서 접속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팩스 민원 증명 발급은 정부 전자민원(G4C)과 연계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증명 발급 서비스의 인터넷 사이트는 <http://khu.certpia.com>이다.

### 통합 자금 관리 시스템 도입 (BICNet System - Bank in Company Network System)

통합 자금 관리 시스템(BICNet System)은 교내 전산 시스템과 은행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 금융 및 재무 관련 업무에서 금융 전산자료를 활용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통합 자금 관리 시스템은 2007년 중반 도입 구상 이후 다양한 조정과 검토를 거쳐 2008년 12월 도입에 착수해 201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내 회계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 실시간 연동을 통해 예금 계좌번호, 법인카드, 교내 행정부서 코드, 은행 코드 등 기본 자료를 완벽하게 동기화해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입출금과 예금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자동 전표 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금주 조회 기능을 도입해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더 나아가 자금 관리 업무에서 단순 반복적인 대량 작업을 일괄 자동 처리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10분 이내로 관리 업무와 확인 작업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카드사와 연계해 법인카드 지출 증빙을 전산화하고, 법인카드 관련 조회 기능을 제공해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수작업이 많은 입시, 등록, 장학 업무를 개선하고자 BICNet 시스템을 이용해 교내 등록 시스템과 은행 등록 시스템을 연동해 행정 업무에서 수작업을 대폭 개선했다. 등록 학생은 은행 납부 후 10분 만에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해 등록과 관련된 수강신청, 도서관 이용, 증빙 발행



등 편의성이 향상됐다.

통합 자금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행정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추가적으로 구상 중이며, 대학 자금 관리 수준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재무 건전성 진단 (Financial Solidity Review)

예산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원) 자율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진단(Financial Solidity Review) 사업을 시행했다.

대학(원),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진단을 실시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단위부서의 건강지수를 점검하고, 재무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핵심가치와 핵심목표 관련 지표 위주로 진단 모형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정량 기반 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각 단위부서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을 최소화했다. 최근 3년 간 각 부서별 예산 규모와 내역을 분석해 대학 재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2010년 4월 세부 진단 항목을 점검하고, 진단 평가 편람을 제작했다. 5월 단위부서 재무 건전성 진단팀을 구성해 7월까지 평가 항목별 진단을 실시했고, 8월 각 단위부서의 재무 건강지수를 산출해 보고를 완료했다. 세부 진단 항목은 추경 발생 정도, 교육 직접비 비율, 관리운영비 비율, 소모성 경비 비율, 인건비성 경비 비율, 2월 집행액, 발전기금 모금 실적 등이다.

재무 건전성 진단을 통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구성원 간 합의를 도출하며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배정과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 건전성 진단은 O&P Review등과 연계돼 자율운영 제도의 안정화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 수립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치시키고, 예산 관련 각종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망라한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종합 정리된 예산 관련 지침은 편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과 주요 기준뿐 아니라 해석까지 곁들여 단위부서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에 관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거쳐, 7월부터 2개월 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나 모호한 지침 등 개정 사항을 발굴했다. 10월 책자 발간과 함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은 2011학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예산 편성 지침, 예산 운영 지침, 주요 수입·지출 산출 기준, 대학(원) 자율예산 편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예산의 집행 처리 기준,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예산 업무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종합 정보 시스템 사용 매뉴얼, 계정 과목 명세표 등이 실려 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 수립은 자율운영 체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

###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설립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3월 교직원의 영유아 자녀 육이를 돕는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했다. 경희유치원 1층에 자리 잡은 직장어린이집은 약 100㎡ 면적으로, 영유아 25명을 돌본다.

2008년 10월 경희어린이집 신설안을 마련했다. 2009년 7월부터 교수회와 노조 대표를 포함한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2010년 1월 경희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설장을 선임하고 개원 준비를 마쳤다.

개원과 동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7월 경희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논의했고, 8월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내규를 제정했다.

###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정년퇴직자와 20년 이상 근속한 명예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조정했다.

재직 교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은 외래 진찰과 선택 진료비를 100% 감면하고, 직계 가족은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퇴직 교직원 본인의 외래 진찰료는 100%, 선택 진료비는 30%를 감면하고, 퇴직 교직원의 배우자도 외래 진찰료 100%, 선택 진료비 20%를 감면해준다.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비(자기계발비) 월 10만 원 이내 지급, 사회교육원 수강료 50% 감면, 자녀 출산 축하금 50만 원, 보육비 10만 원 비과세 처리, 취학 전 자녀 1인당 50만 원(자녀 2인까지), 중·고교 학자 보조금(수업료, 육성회비) 지급 등이다

### 성폭력상담실, 성평등상담실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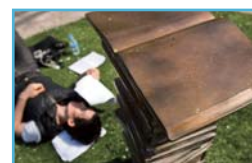
학내 성폭력 사건을 줄이고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실을 '성평등상담실'로 개편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성폭력' 상담실이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명칭 변경은 2010년 5월 성폭력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11월 성폭력상담실 부서 명칭 변경(안)이 통과됐다. 성평등상담실은 성평등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대학생의 이성관계와 성문제 상담, 재학생의 성 인식 조사 등 남성과 여성이 차별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서울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전 직원 교육

2010년 11월, 서울캠퍼스 청운관 B 117호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강이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 분야에서 실현해야 할 장애학생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07년 12월 방귀희 교수의 '장애인 명사 특강'에 이어 2009년 12월에는 김종배 박사의 '장애 이해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방향' 특강이 개최됐다. 장애 인식 개선 특강은 교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업무 영역별로 장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 서울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2010년 11월, 청운관 1층 로비에서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재학생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학생 지원 봉사단 Happy Plus가 함께 참여해 점자 핸드폰 줄 만들기, 교내 불편 시설물 조사, 장애 인식 개선 설문 및 포스터 제작 등을 진행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행사는 3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08년 '장애학생 셀프 리더십 캠프', 2009년 '블라인드 레스토랑'과 장애 체험에 이어 2010년 1학기에 '블라인드 레스토랑'이 다시 열렸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재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장애학생 입장에서 대학 편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국제캠퍼스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학생과 함께 어울리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를 넘어 화합과 창조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학문세계를 구현하겠다는 경희정신의 구체적 실천 가운데 하나다.

2010년 4월, 장애학생 지원 단체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1기가 발대식을 가졌다. 2011년 2월까지 활동한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1기는 기획팀, 홍보팀, 지원팀을 구성해 중증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 해 4월, 장애학생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7월에 열린 '나눔의 기쁨 그리고 성장'을 주제로 한 희망나눔캠프에는 장애학생과 도우미,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등이 참가했다.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은 상시적으로 진행됐다. 강의실 내 장애학생 전용 좌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름 그리고 소통'이라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자체·시각·청각 장애 등 유형별 체험 행사, 점자도서와 촉각도서 전시회도 열었다. 또한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타 구성원의 인터뷰 등이 담긴 동영상 '이주 특별한 경희'를 제작했다.

2010년 11월에는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장애 대학생 IT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경희대학교 출신의 삼성 SDS 직원들이 장애학생의 멘토가 되기로 했다.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파견직을 포함한 국제캠퍼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 서울-국제 캠퍼스 셔틀버스 증차 운행



### 국제캠퍼스 수도권 통학버스 운행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증설됐다. 스쿨버스 증설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10년 8월부터 셔틀버스를 늘려 운행하고 있다. 그동안 하루 2회 운행하던 것이 3회로 늘어났다. 국제캠퍼스에서는 7시 30분, 10시, 12시에 사색의 광장에서 출발하고, 서울캠퍼스에서는 13시 30분, 16시 30분, 18시에 온실 앞에서 출발한다.

국제캠퍼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010년 1학기에는 3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62일 동안 운행했고, 2학기에는 9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67일 동안 운행했다.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학생지원과가 주관하는 수도권 통학버스는 인천, 부천, 일산, 용인, 성남, 안산, 안양 등 4개 노선으로 등교할 때 1회 편도만 이용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고용노동부의 '차별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처우를 개선했다. 교육, 복지, 급여 책정 기준 등을 변경하고 고용보험 환급, 장애직원 격려금 지원 등 법적 혜택이 확대됐다. 2010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 전자 출입통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도서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지원 사업은 2010년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경희사이버대학교(서울)와 KT(국제)가 교육훈련 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2010년 1월 '복지 혜택 지원 사업과 급여 책정 기준 변경안'이 통과되어,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 근로 형태, 업무 성격, 군 경력, 학력 등을 반영하게 됐으며, 특히 2년차 재계약 시 월 급여를 인상해 해당 업무 숙련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재직 중인 장애직원이 본교 인사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첫 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기 연도부터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격려금이 지급된다.

### 경희 행정·복지·서비스 2010 프로젝트

소통과 창조의 열린 대학 행정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행정의 전문화, 효율화, 선진화를 실현하는 경희 행정·복지·서비스 2010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행정의 철학과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행정 구조를 재편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



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체계를 마련해 경희대학교 고유의 '공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0년 2월 전문행정·복지추진위원회 산하 연구 TF를 발족했다. 4월 연구 TF 1차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토론에 이어, 양 캠퍼스 교직원 전체가 참여한 'Embrace 2010 직원 연찬회'를 통해 행정과 복지,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월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고 10월 해외 대학 사례 연구 부문을 추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공생의 공동체'라는 전문행정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자율운영 체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분야별 혁신 과제와 실천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통합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연구·교육 인프라

### Space 21 착공



#### 서울캠퍼스

2011년부터 Space 21 서울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교문 주변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3월에는 대체육동장이 조성될 노천극장 소리관 철거를 위한 펜스(가림막)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터파기 공사는 면학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방학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육동장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2011년 하반기 대운동장 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조정을 마무리해 12월에 터파기 토목 공사(발파 등 교육 환경 저해 요소가 있어 겨울방학 기간에 맞춤)를 시작할 예정이다.

#### 국제캠퍼스

Space 21 국제캠퍼스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및 종합체육관 부지 수목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4월 종합체육관 부지 및 도로 선형 변경 구간의 토공사(토사 절취 및 반출)를 구성원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한다.

국제캠퍼스는 종합체육관 부지 조성 및 도로 선형 변경 구간의 토공사와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건물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사업 대상 건축물이 캠퍼스 내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므로 교육·연구 환경 및 구성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복지회관 신축

2011년 1월 복지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복지회관은 증가하는 교육 공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마스터플랜 1단계 공사를 위한 대체 건축물의 기능도 수행한다. 복지회관은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2,240평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무용학부와 사회교육원 등이 입주했다.

복지회관 신축을 계기로 강의실, 실습실, 행정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등 교육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공간도 확충됐다. 또 다목적 홀을 전면 배치해 무용 교육의 다양화와 심도 있는 공연 교육이 가능해졌다. 신축 복지회관은 연구·교육 수월성과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경희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될 계획이다. 아름다운 캠퍼스 만들기의 일환으로 계획된 '걷고 싶은 거리'는 서울캠퍼스 선동호 주변에서 선금교 사이 구간에 조성될 예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꿈꾸는 공간, 소통과 융합의 공간, 사색과 창조의 공간 등 구간별로 특색 있는 주제로 꾸며진다. 꿈꾸는 공간은 선동호와 주변 산책로, 소통과 융합의 공간은 벽천에서부터 선금교 사이, 사색과 창조의 공간은 선금교에서 야외 조각장까지이다. 서울캠퍼스 걷고 싶은 거리는 2009년 5월 '경희와 함께 거닐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구성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조성 계획을 시작했다.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후면 언덕 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캠퍼스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캠퍼스 내 문화 공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 공공디자인



교내 공공디자인과 캠퍼스 종합개발계획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품위 있고 쾌적한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했다. 2010년 3월 Space 21 거버넌스가 구축됨에 따라, 그간 출판문화원이 담당했던 공공디자인 업무를 건설사업단 디자인센터로 이관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5월 치의학전문대학원 기부자 예우 벽화 디자인과 'Academy of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0 / SIMF 2010 - 음악의 현정' 행사 입간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8월 마스터플랜 공사장 펜스(가림막) 디자인과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의 강의실, 부서 명패 등 사인보드 디자인을 정했으며, 10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의 내외부 현판 디자인을 마무리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교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앞으로 단과대학의 특징을 살리는 현판과 서체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

서울캠퍼스 입구와 진입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캠퍼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60주년 기념 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정문에서 대학본부에 이르는 주 진입로와 서쪽 녹지 공간 개발을 주축으로 해서, 정문과 경희의료원 진입체계 개선, 경희의료원 주차장과 진입 광장의 진입로 재조성, 경희여중고 진입로 재조성, 배수시설 정비 및 천수 공간 조성, 보행 공간 내 산책로와 휴식 공간 조성, 이벤트 광장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60주년 기념 광장 조성을 통해 서울캠퍼스 주 진입로와 주변 공간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Space 21 공사를 위한 진입로와 중앙도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구축해 국제적 차원의 강의실, 연구실, 회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학술기관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연구 부문의 국제화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1월 경희대학교 - 와세다대학교 - 베이징중앙미술학원 3자 간 컨퍼런스를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응용과학대학에서는 해외 거주 신입 교원을 채용할 때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11월 법학전문대학원도 법학관 401호에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 대학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됐다. 현재 전자정보대학과 외국어대학이 화상강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 와세다대, 미국 와이오밍대 등과 화상강의 교류를 협의하고 있다.

### 국제캠퍼스 천문대 우주과학 전시장 조성



국제캠퍼스 천문대 1층 및 지하 1층에 우주과학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천문·우주과학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우주과학과는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인 렌즈지름 76cm 광학망원경을 보유한 천문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1997년에는 기린 자리 근처에서 변광성을 발견, 당시 국내 천문학계 70년 만의 경사리는 평가를 받았다. 천문대는 그동안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무료 관측 행사, 과학 캠프 등을 진행해왔다.

우주과학 전시장이 개관되면 연구 공간의 확충뿐 아니라, 우주과학의 역사와 최신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대학의 사회공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 학 문 화

### 뉴스레터 <Lux Humanitas>



경희 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 뉴스레터 <Lux Humanitas> 3, 4호가 발간됐다. 뉴스레터는 분기별로 연구와 교육, 사회공헌 분야의 주요 정책과 행사, 이슈, 인물 동정 등을 담아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로, 2010년 5월 3호에 이어 11월 4호가 나왔다.

<Lux Humanitas> 3호는 '희망 2010'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Space 21 착공,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을 중심으로, 공감과 합의, 배려와 존중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통해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다운 대학을 지향하는 경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2009년 대학평가 결과, 교원 정년 연장제, 교직원 연찬회, 입학사정관제 등을 상세하게 전하는 지면으로 구성됐다.

4호는 2010년 대학평가와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 Peace BAR Festival 관련 기사를 비롯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예비 발굴인재 잠재력 향상 캠프, 경희 HR 포럼 등 경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면이 이어졌다.

뉴스레터 <Lux Humanitas>는 대학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문을 포함한 경희 구성원은 물론, 대학 관련 기관과 단체, 고등학교 등에 뉴스레터를 배포해 경희의 진취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있다.

### '미니홈피 경희'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자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경희의 다양한 정책과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니홈피 경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경희를 알리고 있다.

2009년 9월 공식 오픈한 미니홈피 경희는 2010년 3월 팀장 및 6명으로 구성된 학생 홍보도우미를 선발해 미니홈피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학생 홍보도우미는 타운 소개, 경희 스토리, 경희 라이프, 이벤트, 방명록, 링크 등을 통해 매주 3~4개의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방명록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 회원은 약 600명에 이르고, 매일 5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2010년 5월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hublog>)와 연동해 경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는 현재까지 약 6만 5,000명, 하루 평균 200명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 커뮤니케이션 웹진 'Future 경희'

2010년 9월 30일부터 웹진 'Future 경희'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발전상을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 등 10만 명이 넘는 온라인 독자에게 직접 전한다.

웹진 'Future 경희'의 전신인 '인터넷 Future 경희'는 2009년 11월 웹디자인에 착수했고,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거쳤다. 2010년 8월 대학 메인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인터넷 Future 경희'는 홈페이지 메뉴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과 소통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웹진으로 확대 개편하



고, 9월 30일부터 경희 구성원에게 격주(월요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투데이, 피플, 정책 정보, 문화 등으로 구성된 웹진은 경희의 다양한 소식을 교내외에 알리는 온라인 미디어이다. 웹진은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경희가 거둔 각종 성과를 알리는 등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대학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



2009년 한 해 동안 경희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행사, 이슈 등을 종합 정리한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를 발간했다. 뉴스레터 <Lux Humanitas>와 함께 구성원이 주요 정책과 제도의 취지, 추진 상황, 성과를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목련리포트>는 2008년 창간된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10년 4월 발간된 <목련리포트>는 2009년 개교 60주년 기념 사업의 성과와 의의, 국내외 대학평가의 지속적 상승 원인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교육, 연구, 실천, 의과학, 세계화, 행정·복지, 대학문화, 단신과 인물 동정 등으로 꾸며졌다. 국내 대학 최초로 발간되는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는 대내적으로 경희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경희의 성취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경희 커뮤니케이션 2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경희 커뮤니케이션 21'이 교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교의 주요 정책과 진행 상황, 추진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해 교무위원회의 등 주요 회의 결과를 경희 커뮤니케이션 21에 공개하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 경희 커뮤니케이션 21에는 각종 회의록과 캠퍼스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 8개 섹션에 걸쳐 총 158건의 자료가 올라 있다. 학교 운영에 관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대학 경영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개편



2009년 개교 60주년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2010년 8월 오픈한 신규 홈페이지는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사회의 온라인 환경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제작됐다.

이를 위해 2008년 5월 홈페이지 개편 TF를 구성하고 국내외 우수 대학의 홈페이지 사례를 연구했다. 2009년 5월 시험 운영을 거쳐 2010년 2월 콘텐츠와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고, 3월 운영 업무를 출판문화원으로 이관했다. 이어 멀티미디어와 정보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TF를 재구성하고 8월 정식 오픈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예술적 심미성과 정보 접근성, 기능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각종 콘텐츠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뉴스를 취재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보강했다.

## UI(University Identity) 개편

경희의 설립정신과 핵심가치,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UI(University Identity)를 개편해, 대내적으로는 구성원의 정체성과 소속감,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UI는 '학문과 평화'를 추구하며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희의 비전과 철학, 목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5월부터 개편 작업에 들어간 UI는 2010년 6월 대학휘장, 워드마크, 캐릭터마크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이기본 디자인과 다양한 응용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UI의 상표·서비스 등록을 출원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UI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0 정책백서 <학문과 평화>



2006년 이후 지난 4년 간 경희가 추구해온 제 2 도약의 비전과 철학, 목표는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제도의 추진 성과와 진행 상황을 아우르는 정책백서 <학문과 평화>가 발간됐다. 정책백서는 경희대학교가 2006년 말 개교 60주년을 3년 앞두고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나간 과정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백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경희의 창학이념과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취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체계를 개괄했다. 2장은 2007~2010년 경희의 발전상을 주요 지표들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 3장은 정책백서의 '본론'으로 교육, 연구, 실천, 의과학, 세계화, 행정, 복지, 인프라, 대학문화 등 전 부문에서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목표와 진행 과정,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다. 이어 4장에서는 2010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한자리에 모았다.

정책백서를 기획한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학 구성원이 경희의 비전과 발전상을 재확인하고, 이를 제2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학사회와 더불어 대학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이다. 대학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은 대학과 대학이 서로 교류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백서는 경희의 도약은 물론 한국 대학의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상 커뮤니케이션 운영

이메일과 홈페이지, IPTV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동적인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개교 60주년 기념식 동영상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목련회의 동영상 '리뷰 2009'와 2010년 2월 연말연시 동영상 e-카드 '희망 2010'를 발송하면서 동영상 위



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0년 5월 Space 21 출범식, 7월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 9월 휴머니티스 칼리지와 경희지구사회 봉사단 출범식, 12월 목련회의 등에서 동영상 제작, 상영대 행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어 2010년 3월 의·치·한 교원연찬회, 4월 교무위원 만찬회, 중앙도서관 음악회와 독서 토론회, 총장 특강에서도 영상 제작물이 상영됐다. 7월에는 폴 케네디 교수의 미원 렉처를 DVD로 제작하고, DVD에 수록된 콘텐츠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경희의 영상 커뮤니케이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매그놀리아 스토리’ 소액모금 캠페인



2010년 10월 발족한 학교 발전기금 소액모금 프로그램인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가 80여일 만에 약 1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냈다. 기부에 참여한 인원이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장학과 사회공헌 두 분야로 나누어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장학 분야의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선배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후배는 다시 미래의 후배에게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사회공헌 분야의 기금은 경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나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비로 사용된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사이에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한 자원 마련이 활기를 띠게 됐다. 기부 신청은 매그놀리아 스토리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할 수 있다.

### 전 직원이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 및 콜로키움 첫 개최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양 캠퍼스 전 직원이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 및 콜로키움이 열렸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 직원은 대학행정의 철학과 역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행정 혁신을 확인했다.

연찬회는 ‘대학, 경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과 ‘경희 행정·복지·서비스 2010’ 콜로키움으로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조인원 총장과 8명의 패널이 전환기의 대학사회, 학문적 존엄과 대학행정, 자율운영과 소통의 대학 거버넌스 등에 대해 토론했다. 콜로키움에서는 전문행정·복지추진위원회 산하 ‘전문행정·복지 추진 TF’가 경희의 전문행정·복지 철학과 이념, 미래의 대학 전문행정, 행정 서비스 혁신과 구성원 복지 향상,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과 전문행정 등 4개의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팀별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 직원은 변화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최상의 제도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 혁신의 의지를 다졌다.

### 신입생 환영 행사



2010 신입생 환영 행사는 새로 입학한 학부 1학년 학생에게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대학생 활을 안내하는 기존의 환영 행사에서 벗어나, 세계적 석학의 특강을 통해 대학과 학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를 제공했다. 2010년 2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는 학부 신입생 4,000여 명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1부는 '미원 렉처'로, 첫 번째 초청 석학은 미국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교수였다. 폴 케네디 교수는 미래사회는 대학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조화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고, 이어 신입생들의 진지한 질문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재학생과 동문 연예인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2010년 신입생 환영 행사는 세계적 석학과의 만남을 통해 학문과 현실에 대해 성찰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신입생뿐만 아니라 동참했던 학부모들도 경희대학교의 차별화된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교실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국제캠퍼스 혜정박물관에서 열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에는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소속 외국인 학생 87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문화교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체험학습 과정으로, '길', '빛', '춤', '수'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전시관 학습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각 주제를 설명하는 관련 지도 유물들을 관찰했고, 체험학습 시간에는 혜정박물관이 보유한 주요 유물들과 연계된 문화 관련 체험물을 직접 만들었다. 이 문화교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경희기록관 설립

경희학원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고 활용하는 경희기록관이 2010년 7월 설립됐다. 1999년부터 학교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기능은 서울캠퍼스 중앙박물관 경희역사자료실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경희역사자료실의 기존 업무 범위가 역사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한정돼, 경희학원 전반의 기록물 관리와 교사 편찬, 정보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경희기록관 설립을 위해 1년 간 연구가 선행됐다. 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 현황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국내 타 대학의 유사 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대학 기록관의 사례를 검토해 청사진을 구상했다. 2010년 5월 경희기록관이 중앙도서관 부속기구로 설립됐고, 7월 13일 독립 부속기관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경희기록관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광릉캠퍼스 등에 분산돼 있는 중앙도서관과 각 부속도서관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인쇄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료들도 축적해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학 운영의 토대이다. 경



희기록관은 특성화된 운영을 통해 21세기 대학 기록관의 모범을 제시할 계획이다.

## Magnolia 2010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화합과 나눔의 축제 '매그놀리아(Magnolia) 2010'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3,500여 명의 경희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경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는 1부 목련회의와 2부 목련음악회로 진행됐다. 목련회의에서는 한 해 동안 교육과 연구, 사회·대학 발전에 공헌한 경희인에게 수여하는 목련상을 시상했다. 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정보디스플레이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과대학 장진 교수, 즐기세포 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공을 세운 생명과학대학 손영숙 교수가 수상했다. 사회·대학 부문은 30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온 한의과대학 김창환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2부 목련음악회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 초청돼 더욱 의미가 깊었다. 합창 연주에 앞서 경희 구성원의 '나눔의 정신'이 전해졌다. 조인원 총장이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에게 '아트스쿨 후원금 및 희망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011년 케냐 키쿠유 지역에 '지라니 아트스쿨'이 세워지면 아프리카의 소외된 빈민 어린이들에게 무상 교육과 급식이 제공된다.

음악회에 출연한 가수 김장훈 씨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과 뜻을 함께 한다며 사회봉사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장훈씨는 지난해 국제캠퍼스 혜정박물관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목련회의와 목련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문화나눔 행사로 정착되고 있다. 경희 고유의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 KSSI 사업추진

기획위원회 사무국은 2010년 1월부터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KSSI(Kyung Hee Student Satisfaction Index)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획위원회 사무국은 7대 선결 과제를 선정하고, 매달 구체적인 실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SSI 사업 선결 과제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부문으로 선정됐다. 7대 선결 과제는 실험실습, 기자재 보안, 학사 관리 및 행정 서비스, 교과과정 개선, 취업 지원 서비스, 학생 편의시설 확충, 교수 및 강사 정보 제공, 학생문화 지원이다.

2010년 8월 노후화 건물의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경대학교와 한의과대학 등이 보수를 마쳤고, 학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웹진 발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수강조회 및 수강신청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재학생 상담도우미 선발, 직원 대상의 친절 교육 실시, 수업용 미니홈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 조성



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학생문화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KSSI 사업은 경희가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다. 교내 시설 확충부터 수강 프로그램 개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점검, 개선하는 한편 학생들과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

2010년 9월 17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경희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이하 GSC)이 출범식을 가졌다. GSC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교적 사회공헌 기구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미래대학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식과 함께 열린 행사에는 경희 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소외계층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GSC는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더 나은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GSC는 2011년 봄학기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교과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GSC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Global Praxis Program'이다. 이는 현행 봉사학점제도를 개선해 재학생의 지역 및 지구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학 기간 중 비교과 학점으로 최대 3학점까지 사회봉사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GSC의 출범을 통해 미래대학의 패러다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GSC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함께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

### 'Space 21' 출범식



캠퍼스 지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이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육, 연구, 국제화, 사회공헌이 한데 어우러지는 친환경 캠퍼스의 조성은 개교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거교적 의지의 발현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구성원 대표의 카운트다운, 조감도 영상 상영, 총장 축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문 가수 김태우 씨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증했다. 김태우 씨는 "Space 21을 통해 모교가 세계 최정상 대학으로 성장하고, 후배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이번에 발전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실천인문학 강좌

미래문명원 실천인문학센터는 2010년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15개의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강좌를 운영했다. 서울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구청 등 14개 기관과 경희대학교 심화반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선정 사업인 '경희대학교 시민인문학 강좌'를 서울과 수도권 5개 지역에 개설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도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됐다.

2010년 3~4월 입학한 각 과정 총 523명의 수강생들은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24주의 교육을 마치고 11~1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문학(8강), 글쓰기(8강), 역사(12강), 철학(12강), 예술(8강), 명사 초청 특강, 사회적 기업 및 공동체 일자리 창업 사례 발표, 창업 전문인 강좌, 금융 재무 컨설팅 강좌 외에도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역사 유적지 탐방,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실천인문학 강좌의 공통 목적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갖도록 도우며, 시민사회의 윤리의식을 복돋워 사회공동체에 다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천인문학센터는 인문학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복원하면서 인문학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 강좌가 대학의 지적 자산을 사회에 환원해 '대학의 연구 교육'과 '사회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 경희의료원, '경희 SNS 소통 광장'

경희의료원이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페이지인 '경희 SNS 소통 광장'을 개설했다. 경희 SNS는 트위터(@khumc), 페이스북(kmcpr@khmc.or.kr), 교수진 블로그와 홈페이지, 병원 내 문화센터 등을 한데 모아 건강 정보, 건강 상담, 병원 소식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내분비대사센터에서는 최근 폭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당뇨병 수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환자가 당뇨병 수첩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날마다 혈당을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 혈당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동안 손으로 작성하던 당뇨병 수첩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당뇨에 관한 일반 상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SNS는 PR 마케팅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건강 강좌를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외국어대학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0년 5월 29일 외국어대학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소속 교원과 명예교수, 재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외대 구성원은 5월 29일의 기념식과 홈커밍데이, 10월 국제 학술회의, 12월 30년사 편찬 등으로 이어지는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성과를 되새기고, 새로운





발전상을 모색했다.

재학생과 동문이 적극 참여한 홈커밍데이는 재학생과 동문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10월 28일 한누리소극장에서는 외국어대학 설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가 1부 '외국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2부 '한국 내 외국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렸다. 외국어대학 교수를 비롯해 러시아 푸시킨스돔대 그라칼로바 교수, 러시아 게르첸국립사범대 A. 그라칼로프 교수, 일본 도쿄대 나가시마 히로아키 교수, 서울대 박성창 교수 등 7개국 10명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외대 30년사》는 2010년 12월 30일 발간됐다.



## 전진하는 경희

###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계획, 두 부문 모두 최우수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2009년 성과 평가'와 '2010년 사업계획 컨설팅' 두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 받게 됐다.

'2009년 성과 평가'는 사업 계획,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실적과 성과, 성과 지속 및 확산 등의 항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사업계획'은 사업 설계, 사업 운영 및 관리, 성과 확산 부문을 평가받았다. 경희대학교는 사업계획이 대학의 인재상 및 특성화에 잘 부합하고, 세부 사업들의 추진 실적과 성과가 다양한 것이 인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희의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영예학생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영예학생 프로그램은 잠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집중적인 실천 교육을 통해 학문지식과 실천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영예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다음 기수 학생의 멘토로 활동하게 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가진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의 이번 평가를 계기로 경희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지닌 차별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한방 재료가공 학교기업 '2010 모범기업' 선정

'한방 재료가공 학교기업' (대표이사 박찬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010년 학교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모범 학교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2004년에도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5년 간 총 2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방재료가공학과의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교기업의 건실한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주력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생명과학대학 작물 바이오텍 연구센터 개소



생명과학대학이 2010년 6월 30일 '작물 바이오텍 연구센터' (센터장 안진홍 교수)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식물 바이오텍 기술을 개발해 작물을 대량 생산하고,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센터 건물에는 작물 바이오텍 연구센터와 부속시설(240평), 세계 최대 규모의 벼 유전자색인 계통 종자 보관실(10만여 종, 15평), 자동 온도 조절 작물 생장실(16평), 다목적 식물 생장실(2평), 자동 온도 조절 온실 8개 동(160평), LMO 농장(450평) 등이 갖추어져 있다.

작물 바이오텍 연구센터는 앞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교원을 확보하고, 국제화된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강화된 자체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국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세계적 연구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 응급의료센터는 진료뿐 아니라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요건 충족 여부, 응급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 응급 진료를 부문별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112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경희의료원을 포함해 39개의 기관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 경희의료원,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HOPO) 공식 지정

경희의료원이 2010년 2월 17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로부터 장기 적출과 이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기이식 분야 최상위 전문기관(HOPO: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장기이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경희의료원은 앞으로 뇌사자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뇌사자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수행하고, 잠재 뇌사자 관리 체계와 발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에 따르면, 2010년 2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1만 7,055명에 이르지만 뇌사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해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HOPO로 지정됨으로써, 경희의료원은 뇌사자 판정과 관리, 잠재 뇌사자 관리, 장기이식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연구에도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뇌사 판정 대상자를 관리하는 권한과 잠재 뇌사자의 신장과 각막 사용 우선권을 확보했으며, 장기이식 활성화를 통해 뇌사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사랑의 나눔'을 연결하는 사회공헌의 계기를 마련했다.

### 경희의료원 암센터 다빈치S 로봇수술 204례 달성



'작지만 강한 암센터'를 지향하는 경희의료원 암센터가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를 도입한 이후 환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다빈치 로봇은 개복 수술과 최소 침습적인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모두 지닌 원격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3차원 확대 입체 영상, 손떨림 방지 기술 등으로 신경이나 혈관 등에 가하는 손상을 최소화해 정확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경희의료원 암센터는 지난 2년여 동안 갑상선, 전립선, 자궁 절제 수술 등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204례를 달성했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환자의 회복 경과와 만족도 면에서 탁월한 결과를 거둬 앞으로도 활발한 집도가 예상된다.

### 경희대 부속병원,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 1위'

경희의료원이 뇌혈관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병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질환별 상위 10대 요양기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경희의료원을 찾은 뇌혈관 질환 환자가 1만 4,7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에 위치한 동의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은 양·한방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뇌출혈 응급 수술보다는 출혈 이후 재활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희의료원 소화기센터 상부위장관 내시경 2만 레 달성

경희의료원 소화기센터가 2007년 6월 개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 연간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진 2만 레를 달성했다. 소화기센터는 2010년 12월 의료원 내 '봄 갤러리' 에서 '2009년 상부위장관 내시경 2만 레 달성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의료원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한 소화기센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2만 번째 내시경 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동서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권 2매를 증정했다. 또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연 2만 레 달성에 많은 도움을 준 산업의학과, 동서건강증진센터, 대외협력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경희의료원 감마나이프 수술 2,000레 달성

경희의료원이 2010년 1월 '감마나이프 수술 2,000 레 달성 기념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신경외과 임영진 교수(감마 나이프센터장)는 단일 의사의 감마나이프 수술 횟수로는 국내 최다인 2,000례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현재 신경외과 질환 중 뇌종양과 뇌혈관 분야의 치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임영진 센터장은 "경희의료원이 감마나이프 수술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입지를 굳힌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 대한민국 한의학체협단 협약 체결



2010년 5월 6일 경희의료원과 중앙일보가 '한의학체협단'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은 경희의료원장, 헬스중앙 대표, 한방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경희가 자랑하는 한방 의학이 일반인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은 한방병원 소개와 한방 명의(名醫) 강좌 외에 기체조, 뜸 치료, 좌훈요법 체험, 체질 진단 설문, 조제실과 탕전실 견학, 사상체질에 맞는 점심식사, 한의학박물관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 경희의료원 치과병원 서울시와 '폐 보철물 기부' 협약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은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과 '사랑의 폐 보철물 기부 공동협력 협약' 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치과병원은 환자 본인이 직접 기부하거나 환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폐 보철물(폐 금니 등 치과 보철물)을 재활용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폐 보철물 수익금 기부는 치과병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자원 재활용, 어린 세대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병원은 환자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모금함을 설치했으며, 치과병원 의료진들은 저소득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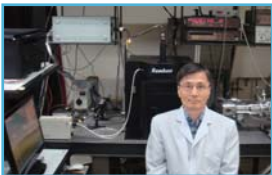
### 동서협진센터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동서협진센터가 2010년 3월 31일 열린 '제3회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시상식에서 대학(종합)병원 전문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iMBC, 동아닷컴, 일간스포츠가 공동 주최하는 이 상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의료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의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3개월 동안 전문가 조사와 네티즌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병의원 35곳, 지방자치단체 5곳, 개인 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수상이 동서협진센터의 국제 의료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침구경락 연구 분야, 20년 간 SCI급 논문 출간 세계 1위

경희대학교가 지난 20년 간 침구경락 분야의 SCI급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출간한 세계 1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출간된 《신경과학 및 생물행동 개관(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에 게재된 논문 '침 연구의 세계 동향과 업적(Global Trends and Performances of Acupuncture research)'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중국 베이징대학 신경과학연구소 한지성 교수와 대만 중국의약대학 호위산 교수가 1991~2009년에 출간된 6,004편의 침구경락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표된 침구경락 관련 SCI 급 논문이 총 망라돼 있다. 논문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다음으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한 대학은 중국 푸단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중국 베이징대학교, 영국 엑스터대학교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의학을 적극 육성해온 경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5년 한국연구재단 우수 연구센터(SRC)로 지정된 침구경락과학연구소(소장 이해정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6년 동안 총 146편의 침구경락 관련 SCI 급 논문을 발표했다.

### 세계 최초로 그래핀 광증폭 작용 발견



미래 나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graphene)의 광증폭 작용을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국제캠퍼스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팀은 이 같은 현상이 그래핀/산화아연(ZnO) 반도체 융합 구조에서 빛-플라즈몬 결합 효과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

탄소 단원자층의 결정인 그래핀은 차세대 꿈의 나노 신소재로, 그래핀 광증폭 작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LED와 태양전지의 발광 또는 에너지 변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녹색 기술에 활용될 수 있다. 최석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회가 발행하는 물리학 분야 세계 최고의 저널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인터넷판에 게재됐으며,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녹색성장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의 '침 치료 효능' 첫 규명

의학전문대학원 윤태영·오택한 교수팀은, 척수가 손상된 동물 모델에 대한 실험을 통해 침 치료가 척수 손상 후 하반신이 마비된 쥐의 운동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척수 손상 후 침의 염증 반응 감소를 통한 운동 기능 향상 효과(Acupuncture-mediated Inhibition



of Inflammation Facilitates Significant Functional Recovery After Spinal Cord Injury)’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윤태영·오탈 교수팀의 논문은 척수 손상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 결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 《질병 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Disease)》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특히 척수 손상에 효과가 있는 혈 자리에 침을 놓은 실험군과 모조 침(simulated acupuncture)을 놓은 대조군을 비교함으로써, 침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제까지 과학적 증명이 부족했던 한의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질병 신경생물학》에 실리기에 앞서, 2009년 동종 학계 최대 규모인 미국신경과학회(Society for Neuroscience)가 ‘핫 토픽’으로 소개해 세계적 관심을 끈 바 있다.

### 항암제 부작용 완화시키는 면역세포 발견



한양대학교 배현수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 동안 조절 T 세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천연 한약재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염증 치료제에 사용되는 목단피에 함유된 성분(메틸 갈레이트, methyl gallate)이 조절 T 세포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 연구센터(MRC, Medical Research Center)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면역학 저널(Journal of Immunology)》에 게재됐다. 배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서도 독성을 일으키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목단피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신물질로 극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약재를 이용한 차세대 항암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 줄기세포 응용기술 연구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줄기세포 선도 연구팀 육성 사업’에 선정돼 매년 10억 원씩 3년 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과부는 줄기세포 기술을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처하고, 정체 상태인 국내 줄기세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손영숙 교수 연구팀은 2009년 7월부터 줄기세포 응용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생체 미세환경 조절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뇌손상 세포 치료제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현재는 생체 미세환경을 조절하는 줄기세포 응용기술을 이용한 뇌졸중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 이온 전도 영상화 연구단, ‘2010 창의적 연구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2010년도 창의적 연구 사업’에 경희대학교 ‘이온 전도 영상화 연구단’(단장 전자정보대학 우응제 교수)이 선정돼 최장 9년 동안 매년 6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 ‘창의적 연구 사업’은 교과부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지닌 과학 기술 연구자를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리더로 육성하는 기초과학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최장 9년 간 교과부의 지원을 받게 된 ‘이온 전도 영상화 연구단’은 신경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이온 전도 활동을 영상화하는 ‘최첨단 뇌 기능 영상 시스템’을 집중 연구한다. 뇌 기능 영상 시스템은 뇌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의 연구는 물론, 뇌질환 진단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돼, 국내외 뇌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방으로 말기 암 정복

한의학과 최원철 교수의 암 치료 사례가 2010년 6월, 암 분야 세계 최고 전문지로 꼽히는 유럽 학회지에 소개됐다. 유럽 암 의사협회 공식 저널인 ‘Annals of Oncology’에 한의사가 소개된 것은 최원철 교수가 처음이다. 이번에 실린 사례는 암이 없어진 상태로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례 2건으로, 모두 최원철 교수가 개발한 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들이었다.

최 교수가 항암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약의 효능에 대한 증명이었다. 효능을 증명하는 데 걸린 시간이 15년이다. 한방 항암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효과, 동일성 등의 성질을 검증받아야 했다. 현재 이 항암제는 1~3상으로 나누는 임상에서 2상까지 검증받은 상태다.

### 응용화학학과 학부생 졸업논문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



응용화학학과 김소연 학생의 학부 졸업논문이 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VIP 논문(Very Important Paper)으로 게재됐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학부생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소연 학생은 경희대학교 출신 선배인 카이스트 화학과 안두식 박사와 함께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논문 제목은 ‘다이아지린의 광분해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비대칭 공명(Mode-dependent Fano Resonances Observed in the Photodissociation of Diazirine)’으로, 다원자 분자의 이례적인 공명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석해낸 것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복잡한 분자의 화학반응 과정과 결과를 레이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화학반응의 생성물 분포를 조작할 수 있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제1회 ‘유엔 책임경영 교육’ 포럼 아시아 최초로 개최



2010년 11월 5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제1회 유엔 책임경영교육사무국 아시아 포럼(The 1st Asian Forum UN PRME: 이하 UN PRME)이 열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이번 UN PRME 포럼은 ‘사회적 공헌을 통한 새로운 산학협력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설정됐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일본 게이오대학교, 한국의 카이스트 등 동북아 지역의 UN PRME 회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사랑받는 기업》의 저자인 시소디아 교수가 참석해 ‘깨어 있는 자본주의와 경영 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행사 이튿날인 11월 6일 개최된 ‘아시아 유스 포럼’에는 일본 게이오대학교 학생 20명이 참석해 열



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제1회 UN PRME 아시아 포럼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윤리적인 기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포럼의 총책임을 맡은 경영대학 박용승 교수(기업평화연구센터장)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경제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커진 것을 확인했으며, 개교 이래 꾸준히 유지해왔던 유엔과의 교류가 기업경제 분야에서도 큰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말했다.

### 경희대, 담강대·미래재단 공동 ‘아시아의 미래’ 국제 학술대회 개최

경희대학교는 송재룡 교수(사회학과)를 코디네이터로, 김여수 교수(평화복지대학원)를 단장으로 해서 2010년 11월 대만 담강대, 미국 미래재단(Foundation for the Future)과 공동으로 ‘지구적 전환과 아시아 2060: 기후변화와 정치경제 그리고 정체성(Global Transitions and Asia 2060: Climate Change, Political-economy and Identity)’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대만 담강대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권의 주요 학자 15명이 발표자로 참석, 지구적 대전환기를 맞은 아시아의 대안적 미래를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탄소 및 에너지의 갈림길에 선 아시아, 아시아의 정치경제 및 거버넌스 신모델, 아시아적 정체성의 변화와 전망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급변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적 본질과 위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변화가 아시아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경희대학교에서는 허우성 교수(철학과), 이영식 교수(응용화학과), 박신의 교수(경영대학원)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뿐 아니라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조명해 의의가 컸다는 평을 받았다.

### 경희 모의 G20 정상회의 (Kyung Hee Model G20 Summit)



2010년 11월 국제캠퍼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40여 명이 참가한 ‘경희 모의 G20 정상회의(Kyung Hee Model G20 Summit)’가 열렸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향후 국제경제의 향방을 모색하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에서, 참가 학생들은 세계 각국 대표를 대신해 최근의 경제 이슈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제대학·국제대학원·평화복지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모의 G20 정상회의에서, 대학생위원회는 ‘은행에 관한 규제와 국제 경제기관의 재편(Regulation on Banks and Reform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을, 대학원생위원회는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대체 에너지 자원(Alternative Energy Sources for Balanced and Sustainable Economy Development)’을 주제로 설정했다. 참가 학생들의 주제발표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배정 국가와 외교 현황에 대한 이해도,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외교 능력, 의사 규칙 전반에 대한 이해도, 기조 연설문 내용과 발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모의 G20 정상회의’는 학생들에게 21세기 글로벌 시민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삶은 달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삶은 달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삶은 달걀'은 경희대학교 인문사회재건연구원이 (사)학벌없는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좌다. 한국연구재단의 시민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강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40강좌 1,5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인문학교실은 1기 '디딤돌 학교', 2기 '푸른 학교', 3기 '배움터 길', 4기 '모락산 아이들', '특별강좌 하남희망연대' 등으로 진행됐으며, 2011년 현재 공간민들레, 흥덕고 등을 대상으로 봄학기가 진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가을학기가 예정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인문학교실 '삶은 달걀'은 대학의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취업진로지원처, 'OK-MVP'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



취업진로지원처는 2010년 9월 13일 국제캠퍼스 피스홀에서 'OK-MVP(Outliners in Kyung Hee - My Visioning Project)'로 명명된 프리미엄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1기 발대식을 가졌다. Outliner란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 성공을 거둔 사람', '성공의 기회를 발견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이날 발대식에는 64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취업 전반에 관한 1차 교육을 받은 뒤 총 3단계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 수료 자격을 얻는다. OK-MVP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적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역량 강화는 물론 취업 지원부터 취업 이후 인적 네트워크 구축까지 지원한다. OK-MVP는 기존의 '카네기 리더십 강좌', 'MCAS 자격 취득 프로그램', '토의 스피킹 강좌' 등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것이다.

### 국제교육원 학생 각종 한국어 대회 휩쓸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재학생들이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열린 각종 외국인 한국어 대회에서 대상·장원·최우수상은 물론, 은상·佳作·장려상까지 모두 휩쓸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밖에 안 된 불간 타미르(몽골) 학생은 KBS 우리말 겨루기 대회 1등상, 경희대학교 주최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고려대학교 주최 제9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연극마당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무의선(중국) 학생은 연세대학교 주최 외국인 한글 백일장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했으며, 처딘마(나이지리아) 학생은 고려대학교 주최 외국인 연극마당 '선녀와 나무꾼'에서 최초의 흑인 선녀로 열연해 단체상 2등을 거머쥐었다. 모토오카 테이코(일본) 학생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11회 외국인 한글 쓰기 대회에서 으뜸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모든 생활을 한국화하려고 했던 노력이 수상 비결"이라며 "수상 여부를 떠나 참가 자체가 한국어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한의학과 학생,  
'201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0 대한민국 인재상'에 한의학과 남민호 학생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국 대학생 중에서 40명을 선발한다. 해당 분야에서 거둔 성과뿐만 아니라 인성, 봉사정신, 리더십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상장과 상금,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남민호 학생은 《한의학, 서양의학을 만나다》라는 한의학 책을 번역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대회에서 통역 경험도 쌓은 인재다. 2009년 2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 진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민호 학생은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의학의 보편화를 위해 기초학문을 계속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움, 나눔 그리고 채움'의  
제2회 봉사 페스티벌 개최



제2회 봉사 페스티벌이 2010년 5월 11일 '배움, 나눔 그리고 채움'이라는 특별한 주제 아래 펼쳐졌다. 이웃, 가족, 친구, 어르신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 행사는 5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번 봉사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축제 첫날 서울캠퍼스 청운관 지하 2층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블라인드 레스토랑'이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비장애인이 시각장애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이 행사에는 예약 신청을 한 50여 명의 학생과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예술대학 학생 7명,  
패션 디자인 잡지 《No-Name》 창간

예술대학 소속 김예림 외 6명의 학생이 공동으로 잡지 《No-Name》을 창간했다. 2010년 6월 첫 호를 발간한 이 잡지는 키치(kitsch)를 콘셉트로 설정하고,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사하며 기존의 획일화된 잡지 디자인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학생들은 서울 패션위크 프레스에 참여하는 한편 신진 디자이너들과 협동 작업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잡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전자정보대학 돌쇠팀  
'제1회 탐사로봇 경진대회' 1위

2010년 10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1회 탐사로봇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돌쇠팀'이 총 11개의 본선 진출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참가 팀들은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무선으로 송신되는 영상을 토대로 미로를 통과하며 목표물을 수집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돌쇠팀은 전자정보대학 학술동아리 '돌쇠'에 소속된 이충용 외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대회를 준비하는 돌쇠팀을 위한 학교의 지원도 컸다. 전자전파공학과 김동환 교수는 이들에게 연구실을 빌려주고, 백운식 학장은 대회 참가비와 모터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 이 대회에는 '돌쇠' 소속 'SNI(Stone and Iron)' 팀의 이창현 외 4명의 학생들도 참가해 3위를 차지했다.



### 국제경영학과 학생 ‘GE 리더십 UCC 대회’ 1위



국제경영학과 이은철 학생이 이끄는 팀이 제너럴일렉트릭(GE) 본사가 전 세계 2,300여 명의 인턴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0 리더십 UCC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총 154개 팀이 참가했다.

이은철 학생팀은 교수, 광고 전문가, GE 내부 임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최종 결선에 올랐고, 전 세계 GE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은철 학생은 “열정이 있다면 한계는 없다고 생각했다. 인턴에 대한 소극적인 발상을 바꾸려 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둔 원동력이었다”라고 밝혔다.

###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연결하는 대학생들의 혁신 프로젝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정천식, 생물학과 김주영 학생이 ‘빛트인(Between)’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다. 이들은 배짱, 단호박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배짱을 만드는 농가와 직접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주변의 지인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단호박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찾아가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이동식 판매대를 차리고 위탁 판매하기도 했다.

정천식·김주영 학생은 “공정한 판로를 개척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아이디어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 국제경영학과 학생, ‘3,421시간’ 봉사 기록 세우

국제경영학과 배진현 학생이 봉사활동 ‘3,421시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봉사 활동을 시작한 배진현 학생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봉사 활동이 삶의 가치를 크게 바꿔놓았다”면서 “니눔은 무한대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진현 학생은 “남들이 하나 둘씩 스펙을 만들어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반대로 나 자신이 잃어졌던 경제적인 이유와 취업 등 기존의 강박관념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 후 그보다 나은 일에 나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외봉사라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라는 교육 NGO 단체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는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문교육을 받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1:1 전인적 돌봄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스포츠지도학과 학생 “청각장애는 덤벨 드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지도학과 이우준 학생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덤벨로 이겨내는 국내 유일의 청각장애 보디빌더다. 이우준 학생은 고교 재학 시절 전국 랭킹 1위를 차지해 2008년 대한체육회 체육장애학생으로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국내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미스터&미즈 코리아 선발대회 +80kg급 1위에 이어, 제90회 전국체육대회 +75kg급 1위에 올랐다. 비장애인인 거루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청각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세 차례나 최고 성적을 거뒀다.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을 수상한 바 있는 이우준 학생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함께 밝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 2010 월드컵 영웅 이정수 동문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정수 동문(체육대학)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의 영웅으로 탄생했다. 재학 시절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정수 동문은 수비수로 옮긴 뒤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팀의 불박이 수비수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일본 J리그 가시마 앤티러스에서 활약 중인 그는 "후배들이 경희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국 축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16강을 넘어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경희대학교 야구팀 대학야구 하계리그 우승



경희대학교 야구팀이 전국 24개 대학팀이 참가한 2010 회장기 전국 대학야구 하계리그 결승전에서 성균관대를 5-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8 춘계리그 우승 이후 2년 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이다. 경기 초반, 기회는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잡았다. 2회 적시타로 점수를 뽑은 성균관대학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타를 뽑아내며 점수를 보태 2점을 앞서갔다. 3회까지 상대 투수의 구위에 놀려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던 경희대학교 야구팀은 4회 타자 일순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2사 만루 찬스에서 지명타자 김경용(체육대학) 선수가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3루타로 단숨에 5-2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5회와 6회에 각 1점씩을 내줬지만, 안규영(체육대학) 투수의 호투에 힘입어 5-4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시상식에서도 경희대학교가 단연 돋보였다. 대회 MVP는 안규영 선수에게 돌아갔다. 안규영 선수는 두 차례의 완봉승과 결승전 4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손정욱 투수는 우수투수상, 역전 결승 3루타를 기록한 김경용 선수는 수훈상, 김재곤 선수는 타격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국성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 경희대학교 체육부 제91회 전국체전 값진 성과 거뒀

경희대학교 체육부가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1개를 따내며 '체육 경희'의 위상을 드높였다. 경희대학교 체육부는 주력 종목인 양궁, 태권도, 체조, 에어로빅 등을 앞세워 메달 사냥에 나섰다. 양궁 여자대학부 개인종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모두를 경희가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태권도에서는 금메달 3개를 포함해 6개의 메달을 따냈고, 체조와 에어로빅에서도 6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전국체전 육상 부문에서 경희대 체육부가 입상해 대구에서 열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 경희의 태권 남매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빛내

2010년 중국에서 열린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4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경희의 '태권 남매'가 금메달 4개 중 3개를 목에 걸어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여자 57kg급의 이성혜 동문(태권도학과)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태권도 선수 중 나이가 제일 많았



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재활 시스템으로 몸을 잘 만들어놓은 탓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남자 87kg급의 허준녕 동문(태권도학과)은 대학 시절의 훈련 덕분에 졸업 9개월 만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 허준녕 동문은 “아침마다 달리기를 했던 운동장 옆 계단과 태권도 연습의 주무대였던 체육관과 운동장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여자 62kg급 노은실 학생(태권도학과)은 “금메달을 따고 나니 학교 내에서도 유명인사가 됐다”며 즐거워했다. 경희의 태권 남매들은 올해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체육 경희’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 총동문회 소식

#### 참여와 도약의 '경희사랑 2011년' 신년교례회



‘경희사랑 2011 신년교례회’가 1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400여 명의 동문과 교무위원이 참석한 이날 교례회에서 경희의 위상을 높인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단체공로상, 공로상 등이 수여됐다. 이봉관(서희그룹 회장) 총동문회장은 “2011년을 ‘참여와 도약의 해’로 정한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며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교와 총동문회가 노력을 기울여 대학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이 총동문회장은 “23만 동문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대표되는 경희정신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2010년은 동문들의 성원 덕택에 빠른 발전을 거둔 한 해였다”면서 “구성원의 자신감과 긍지를 높이고, 2011년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동문들께서 경희를 더욱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김용철 이사장은 “경희는 새로운 60년을 향한 희망찬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면서 “설립자가 추구한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경희인의 슬기로운 예지가 함께 할 때 경희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경희인상은 미국 기업전략 수립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경제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박홍열(미국 새기노밸리 주립대 교수) 동문과 34년 간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생태환경 보호에 힘써온 ‘새 박사’ 윤무부 동문(명예교수)에게 주어졌다. 공로상은 이훈(신한회계법인 대표) 동문 외 2명에게 수여됐으며, 단체공로상은 1964년 창립 이래 400여 명 제주 동문의 화합을 이끌고 있는 제주동문회에 전달됐다.



#### 총동문회 도봉산 등산대회

제6회 총동문 등산대회가 2010년 10월 23일 도봉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등산대회에는 경산회(법대 동문산악회), 고양시동문회, 분당수지동문회, 12회 동기회, ROTC 동문회, 여성동문회,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구성원 등 약 1,200명이 참가해 경희인의 연대감을 다졌다.

등산대회는 오전 9시 30분 하일성(스카이엔터테인먼트 회장) 체육대학 동문회장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인원 총장, 총동문회 한명남(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자문위원장, 김성호((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수석부회장, 정재규(정재규치과의원 원장) 수석부회장, 오택열 국제캠 퍼스 부총장 등 총동문회 임원과 학교 인사가 참석했다. 이외에도 이종완(Lyle Pacific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시애틀-워싱턴주 동문회장이 참석해 동문들의 환영을 받았다.

김성호 수석부회장은 “총동문 등산대회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모교의 구성원들까지 늘 자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이 자리에 모이신 경희가족 모두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라는 슬로건 아래 한마음으로 뭉쳐 경희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각 단체별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용어천계곡과 우이암을 거쳐 보문능선으로 하산하는 3시간 코스의 산행을 시작했다. 산행과 점심식사 이후 시작된 시상식에서는 총동문회와 모교에서 마련한 선물이 여러 동문들에게 제공됐다.



#### 총동문장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재단법인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이사장 이봉관)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2010년 9월 9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주)서희그룹 회장) 총동문회장, 조인원 총장, 총동문회 임원과 교무위원 외에도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은 1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동문회는 1992년부터 선배들의 정성을 모아 총동문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1999년 4월 열린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으며, 2000년 1월 5억 원을 출연, 장학재단 설립 등기를 마치고 기금 적립을 확대해왔다. 총동문장학회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689명의 학생에게 총 9억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29억 원에 달하는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학부생 33명, 대학원생 8명 등 41명에게 총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매학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는 경희의 비전 구현에 동참하고 있다.

8년 전 총동문장학금을 받고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주경 동문은 “총동문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어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 경희가족 바둑축제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가 2010년 11월 6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100여 명의 경희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처음 개최된 바둑축제는 동문과 가족, 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모든 경희인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경무기우회(ROTC), 고향기우회(법과대학), 돌사랑회(교직



원), 빈삼각회(교수바둑회), 의료원바둑회 등 단체 단위로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이날 바둑축제에는 총동문회 김성호((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수석부회장, 정재규(정재규치과의원 원장) 수석부회장 등 주요 임원은 물론, 심사위원장으로 한철균 7단(전 기사회장), 심판위원 심우섭 7단(서울시바둑협회 전무이사) 외에도 경희대학교 출신 김바로미(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바둑대회는 평화조(2급 이상), 문화조(3~6급), 세계조(7~9급), 창조조(10급 이하), 재학생부 등 5개 조로 나뉘어 변형 스위스 리그 형식, 총호선, 덤 6집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열린 평화조 최종국에서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황정찬 학생이 우승을 차지해 기념메달, 금수저 4벌, 은수저 4벌과 총동문장학회 장학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문화조에서는 신경호 동문, 세계조에서는 정진봉 동문, 창조조에서는 최재홍 동문이 우승을 차지해 기념메달과 금수저 4벌, 은수저 2벌을 수상했다. 또한 각 조 준우승자와 평화조 3~5위에게도 상품이 전달됐다. 총동문회는 2011년 3월 제2회 바둑축제를 개최했다.

####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제14차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2010년 6월 17~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이봉관(서히그룹 회장) 총동문회 회장과 조인원 총장을 비롯해 이건수((주)동아일렉콤 회장) 고문, 한명남(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자문위원장, 이수경(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사, 이진곤(국민일보 논설고문) 사무총장 등 한국에서 참석한 총동문회 임원들과 신영수 북미 주동문회장, 최재홍, 윤정남 뉴욕 동문회 고문, 조병태 전 미주 동문회장 등 각 지역 동문회장과 100여 명의 미주 동문들이 참석했다.

뉴욕 동문회 전재현(총동문회 이사) 회장은 "이번 총회는 북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경희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를 기억하며 북미주 동문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경희 발전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날로 기억됐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교와 동문회의 위상을 높여온 북미주 지역 동문들이 화합을 다지는 축제 한마당이였다. 2011년 제15차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와 골프대회는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총동문회 신임 회장 취임식 및 정기 대의원총회

2010년 4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총동문회 2010년도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에 서 이봉관(서히그룹 회장) 경희비즈니스클럽 회장이 제25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1970년 포항종합제철에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봉관 신임회장은 1983년 물류·철강 회사인 (주)유성티엔에스, 1994년 (주)서희건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희비즈니스클럽 회장, 개교 60주년 모금



캠페인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회장은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학교”라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출신 학교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며 경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봉관 회장은 총동문회 경희인상(2004년), 인물대상 경영대상(2006년), 경영대학원 경희경영자 대상(2006년) 등을 수상했으며 재경 서리벌경제인 연합회장, 경주문화 중·고등학교 장학회 이사장, 소년소녀 가장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총동문회 2010년도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박찬법(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전임 총동문회장은 “지난 4년간 회장의 역할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뒷받침해주시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경희 총동문회가 23만 동문들의 결속과 교류의 가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지혜와 열정을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법 회장으로부터 총동문회기를 전달받은 이봉관 신임 회장은 “선출해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선배, 동료, 후배들의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경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회가 더욱 발전해야 하며 이에 사랑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기간 : 2010.1.1(금) - 2010.12.31(금)

공식 일정 (총 699회)

공식·비공식 회의 : 191회

교무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 회의

총장 주재 부총장회의, 실무부서장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대학 구성원 대표 간담회

면담 : 350회

부총장 /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 / 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행사 : 94회

교내외 공식 행사, 오찬, 만찬

총동문회 관련 행사



경영대학 특강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 준비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

교외 인사 접견 : 53회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 7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코리아타임즈〉, 〈월간중앙〉 등



캠퍼스 마스터플랜 회의



교양학부 공개 강좌



Anne Harrington 교수 환담

## 총장 연설문

### 1.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비전선포식

인사말 / 2010년 7월 2일

## 의료세계의 새 날,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은 뜻 깊은 날입니다.

경희의과학 탄생 45년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새 희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새 희망과 함께, 우리 모두의 꿈과 포부를 실천으로 옮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경희의과학은 출발부터 남다른 목표를 설정해왔습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해왔습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분야의 교류협력을 도모하며, 소통의 의과학 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두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질병 없는 인류사회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단순한 꿈과 희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초현실적 소임을 스스로 내건 것은 그만큼 인류 건강증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립자께서는 인류사회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인류가 지향하는 ‘문화세계의 창조’는 건강한 인류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십니다.

학제 간 협력을 통한 종합의료체계 구축도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의료에 관한 광범위한 학문세계를 망라하며 질병 치유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문 간 생각과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협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는 동서의학의 협력을 통해 의료의 새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과 창조로 이뤄냈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경희의과학은 그간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선 국내 최초로 CT와 감마나이프, 새로운 수술기법 도입을 통해 진료의 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의학 분야에선 세계 최초 한방 대학병원을 개설하며 한의계의 현대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치의학 분야에선 임플란트, 만성구강악안면통증과 급속교정 치료를 선도하며, 진료의 새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의 산물입니다.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다함께 경희의과학의 숭고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45년 성취를 기반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창조적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새 꿈과 포부의 빛을 밝히고, 의과학의 새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목표가 중요해보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경희의 전통인 소통과 융합의 의과학 세계를 이뤘으면 합니다.

과거처럼, 동서의학이 서로 교류하고,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학과 공학, 의학과 생명과학의 새로운 결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인문, 예술, 경영학과도 의료세계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교류협력을 주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의 우수 대학병원에선 유전공학, 신경과학, 생명과학 분야가 '꿈과 문명', '의료와 산업발전'의 중핵임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생명과학과 의료·보건·정책·봉사를 아우르는 글로벌 헬스 프로젝트(Global Health Project)가 그 예입니다.

우리 대학엔 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학과와 단과대학, 대학원과 연구소에 훌륭한 연구진이 있습니다.

소통과 융합을 향한 창조적 미래에 문호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창조하면서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개척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목표로, 경희의과학의 새 출발을 위해 의료진의 자기강화(self-empowerment) 프로그램을 더욱 힘차게 출발시켰으면 합니다.

훌륭한 진료를 뒷받침하는 첨단 의료 기기와 환경을 갖춘 병원.

탁월한 연구에 불편함이 없는 병원.

의료진의 자기 개발을 다양한 제도,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는 병원.

개방된 진료, 연구 문화 속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의과학의 미래를 24시간 고민하는 병원.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의료진 한 분 한 분이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변화와 창조를 향한 긍정의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린 행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경희의과학의 미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는 한 때 '회의주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회의와 비판, 자기비하의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희의과학은 지난 날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우리 대학 발전을 선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로 교수님, 모든 의료진의 위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약진을 향한 '큰 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더욱 활기찬 노력과 함께 의료행정의 새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 보다 앞서가는 의학, 의료계를 주시하며, 이를 능가하는 '무엇'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첨단 지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약과 성취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성원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희인인 것이, 경희의 의료인인 것이 자랑스러운 대학병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경희의과학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국내 최정상의 가능성은 최근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환자 만족도가 최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위를 했습니다.



2006년 이후엔 줄곧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만족을 위해, 사회와 공공 이익을 위해 배려와 희생을 감수하는 경희정신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간 쌓아온 희생과 노력, 저력을 바탕으로 새 미래를 열 시간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탁월한 임상과 진료를 선도하는 대학병원.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대학병원.

인간애를 실현하며 의료봉사에 열정을 기울이는 대학병원.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자율적 혁신을 이뤄내는 역동적인 대학병원.

이것이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설립자께서 경희의료원 개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희의 목표는 단순히 대학병원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 인류건강을 증진하고, 세계적인 의술을 쌓아가는 것이다.”

동서신의학병원의 개원일엔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개원을 앞둔 시점 중환자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건설 현장을 다녀와서 즉시 보고해라.”

“신의학병원에 서양과 동양 의료진이 와서 배우게 해라.”

“미국서도 오게 하고, 독일서도 오게 하고, 중국과 일본서도 오게 해라.”

경희의과학 가족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기관 구성원, 약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희가족 여러분이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430여 회에 이르는 면담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회의가 병원에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개최된 의학계열 교원 연찬회에 약 300여 분의 교수진이 참여해 변화와 창조를 향한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병원을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립한 비전과 의지인 만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성원하는 긍정의 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개인의 편협한 이익과 영달을 넘어 경희의과학의 미래, 의료계의 새 미래를 함께 열었으면 합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숭고한 뜻과 집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그리고 또 실천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경희의과학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합니다.

의료세계의 새 날을 함께 맞이했으면 합니다.

## 2. 후마니타스 칼리지 및 지구사회봉사단 출범식

인사말 / 2010년 9월 17일

# 경희의 길, 그 꿈과 소명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Humanitas College와 경희 지구사회봉사단 Global Service Corps 출범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엔 지난 60여 년 소중히 가꿔온 꿈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염원하며,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란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문화세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계입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것입니다.

경희의 교가는 그래서 "온오한 학술연구"를 강조합니다.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라는 실천적 결의와 함께, 새로운 문화세계로의 도전과 창조를 염원합니다.

대학사의 선구자 훔볼트 Wilhelm von Humboldt의 지적처럼 고등교육 기관의 기본 소임인 인류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람의, 사람에게 의한, 사람을 위한' 세상.

경희의 학문적 기조이자 실천의 지향입니다.

그러나 이 지향은 비단 경희만의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근자의 상황은 이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드루 파우스트 Drew Gilpin Faust 총장은 '정보 홍수의 시대'와 함께 찾아온 지식의 파편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구글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트위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온전한 지식이 얻어질 리 없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공동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대학교육이 당장 써먹을 실용교육을 외면한다."

"대학은 기업에서,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소위 '무한 경쟁 시대' 라고 일컬어지는 현실세계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려면 사회진출을 위한 전공교육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문화, 실용화 추세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창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시도돼야 개인의 안위와 안락, 나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대학이 자칫 개인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개인적 욕망과 성취, 경제발전 외에도 소중히 가꿔야 할 가치가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예입니다.

이 시대 민주주의 위기에 주목한 시카고대 원로교수 마사 누스바움 Martha C. Nussbaum은 인문학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연민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살아 숨 쉴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아내리는 빙하, 세계 도처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기아와 질병, 예측하기 쉽지 않은 지구 생태계 변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테러와 핵 그리고 전쟁의 위험.

이 모든 문제는 개인과 경제적 욕망의 범주를 넘어서야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지구적 삶의 의제입니다.

대학은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 성취와 경제성장 외에도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 자신의, 담장 넘어 이웃의, 국경 넘어 세상 사람들의 권익과 안위,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사회에 불어 닥친 경쟁의 압박은 이 같은 노력의 호흡을 늦춥니다.

혹자는 이런 인간사회 공공의제를 풀어가는 일은 대학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몫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술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대학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입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해야 합니다.

학문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문은 그러나 순수 학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학문은 그 시작과 끝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경제와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건강, 환경과 같은 실존하는 모든 삶의 세계를 망라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가 다양한 전공분야와 밀접히 결합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 시장경제 철학과 함께 18세기를 살다간 아담 스미스 Adam Smith의 말처럼, '포용적이고 유연한' 인간의 가치가 타자에 연결돼야 합니다.

'내 안의 사유능력'을 강조한 고대 철학자 키케로 Marcus Tullius Cicero의 말처럼, 타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문명사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학이 교양이란 이름으로 가르쳐온 기초학문과 인문학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한 현상계를 이해하고, 그것의 사회적, 지구적, 문명사적 함의를 성찰하는 교양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근간입니다.

최근 경영학을 선도해 온 어느 미국대학 MBA과정은 전공 위주의 오랜 전통을 깬다고 합니다.

인문학을 필수 커리큘럼에 넣었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세계적인 경제공황, 기업부도, 재정위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기업을 더욱 잘 경영하기 위해선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 대학에선 기업윤리를 서약하고 졸업하는 졸업생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인문학의 위기가 논의되는 가운데, 기업의 CEO분들이 인문학 강좌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배우고, 괴테를 배운다고 합니다.

맹자와 노자, 정약옹을 배운다고 합니다.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른 경영'의 기초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명문대 총장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대학의 공공성, 인간 이해의 중요성, 교육의 사회적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푸단대학과 칭화대학에서, 미국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그런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영국 런던대학과 프랑스 파리대학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부분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이들 대학총장들은 대학교육이 개인 발전과 경제성장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적 감성과 존엄, 지구와 자연의 인위가 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경희는 지난 60여 년 바로 이런 학문적 기반 위에서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 특유의 문화세계를 열어가며 교육, 연구,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모색해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은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은 누구보다 엄밀한 과학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유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과학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은 편견과 오류,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시각적 환영'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과학철학'의 거장 칼 포퍼 Karl Raimund Popper는 '인간과 세상이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이라는 사실의 비결정성'을 강조합니다.

무한한 열림의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열린 가능성 속에 우리 모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오류일지라도, 그 오류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길도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진 오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희엔 이 값진 오류를 온 몸으로 끌어안을 '따뜻한 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영혼'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부생 한 사람은 고교 졸업을 2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평소 갈망하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휠체어에 몸을 의탁한 채 학업 뿐 아니라 중학생 멘토링, 시민단체 영문 편지 번역 봉사과 같은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한 교수님은 지난 여름 러시아 연해주 의료 봉사를 위해 2주간 80개의 틀니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수면만을 취하면서 준비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틀니를 해 넣고, 생일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명예교수님이 이끄는 의료봉사단은 무의촌 지역에서 무려 1,400여 명의 주민 환자를 돌봤습니다.

희망을 포기했던 할머니 환자분께 새 희망, 새 삶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과대학에선 재소자,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실천인문학 강좌 재학생, 졸업생 분들과 인문학의 배움을 통해 만학의 기쁨, 자활의 의지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며, 문화의 차이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정을 기획하며, 더 나은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체육 프로그램을, 음악대학은 부산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와 여름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미술대학은 회기동, 미아동 골목길에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포르토 프랑스 재난 지역에선 우리대학 의료진과 간호사, 스태프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공과대학은 수원 하이텍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에선 무료법률지원율, 이과대학에선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결성을, 예술디자인대학에선 시민단체 로고제작 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공익성을 강조한 필립 브룩스(Philips Brooks)는 “최선의 자신은 이기심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 공공성을 지향할 때만이 충만한 삶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류애를 염원했던 인류심리학자 피터 우스펜스키(Peter D. Ouspenski)는 의식의 열린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현세적 삶은 '전략적 의식', '도구적 의식'을 필요로 하지만, 더 높고 숭고한 의식은 이를 넘어서야한다고 합니다.

나와 타인, 공동체와 자연의 섭리를 끌어안는 '초월적 보편성'을 필요로 합니다.

경희는 바로 이런 인간적 자아와 의식, 창조적 보편을 지향합니다.

오늘 새 비전을 선포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은 이 지향을 담아낼 것입니다.

교육, 연구, 실천의 융합을 지향하며, '더 나은 나', '더 나은 문화세계'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경희다운 경희의 길, 그 꿈과 소명을 함께 찾아 나섰으면 합니다.

### 3. Magnolia 2010

인사말 / 2010년 12월 21일

## 보람과 희망, 함께 만들 경희의 미래

존경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 이 자리에서 만나 뵈지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음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웅장하게 연주하고, 교가를 함께 부르며 지난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오늘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다시 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경희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근간인 교육, 연구 분야에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새 시대가 요청하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기초교육의 산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사람과 자연, 공동체의 새 가치를 찾아 나서며, 더 나은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논설에서, 고등교육이 날로 기능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경희의 시도는 “학계와 지식사회의 상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경희의 실험이 “대학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성원을 보냈습니다.

전공교육 분야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응용화학과 김소연 양은 화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안게반테 케미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VIP Very Important Paper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학부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큰 영광입니다.

국제경영학부 이은철 군은 제너럴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본사가 전 세계 2,300여 인턴을 대상으로 연 리더십 대회에서 한국 팀을 1위로 이끌었습니다.

기계공학과 이병진 군은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한의학과 남민호 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에게 주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경희의 학생들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올해 경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학 전체로는, 지난 2년간 경희는 연구 논문 부문 200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구 논문은 신장률 40퍼센트를 기록하며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공 분야별로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이 침구경락 연구 부문 전 세계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중국의 명문 푸단대와 베이징대, 미국의 하버드대를 뒤로하고 세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매해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학술지 분야에서 논문 증가율 200퍼센트를 기록하며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Nature*, *Science*, *Biomaterials* 와 같은 세계적인 저널 논문 출간을 비롯해 국제 논문이 약 200퍼센트의 약진을 보였습니다.

예체능계 역시, 국내외 주목을 끌고 있는 공연과 전시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희가 이룬 교육·연구 부문의 성장 배경엔 경희인 모두의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지지 않는 교수님들의 연구실과 실험실.

연중 우리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는 도서관.

교직원분들의 헌신적인 행정 서비스.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로 경희의 학문적 위상은 국내 최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인 한 분은 이런 성장세를 두고, “놀랍습니다. 어디서 그런 저력이 나오니까?”라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달라진 경희 위상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경희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눈에 띄게 많이 입고 다닌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경희는 이런 역동적 변화와 함께 ‘대학다운 대학’, ‘대학의 미래를 여는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연말을 맞아 이처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성취는 구성원 모두의 숭고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도 이 큰 기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쁨을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20세기를 주도했던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여전히 21세기를 선도할 것인가.”

지난 2005년, 설립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희는 지난 세월 허허벌판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앞으로 경희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몫은 하버드보다 멋진 대학을 만드는 일이다.”

‘하버드보다 멋진 대학.’

아마도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특정 대학을 지칭하기보다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멋진’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차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문적 탁월성입니다.

대학은 학술기관입니다.

경희 역시 그렇습니다.

학술기관으로 탁월한 교육,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희는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학문적 탁월성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다 멋진’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 파우스트(Drew Faust) 총장의 주요 연설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니다.

“지난 1년간 하버드는 공공봉사의 해를 설정해, 대학의 공공봉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구적 아젠다 형성과 함께, 21세기 대학의 새 역할은 공익과 지구 현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성 누스바움 Martha Nussbaum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대학의 모습은 차이와 경계를 극복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지구 차원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미래대학의 또 다른 책무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지구적 존엄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경희 60년 전통 중 자랑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지구사회를 위해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학문의 미래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보다 나은 인류문명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지난 60여 년 꾸준히 실행해온 사회공헌과 의료봉사.

민주시민교육과 지구시민교육.

환경과 평화운동.

경희의 이런 전통은 대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21세기 대학의 새 역할을 규정합니다.

학문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고, 학문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희엔 미래대학의 새 가능성을 열어갈 열정이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국제경영학과 배진현 군은 재학 중 3,2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김형석 교수님은 지난 5년간 사회봉사기관과 비영리학술기관 70여 곳에 기업 이미지 Corporate Identity 를 무상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경희봉사단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자서전을 써주고 있습니다.

호텔관광대 학생들은 동료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빵과 차를 팔았습니다.

노숙인과 재소자를 위해 다년간 실시해온 우리 대학 실천인문학 과정은 올해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한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랑스러운 경희인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우리 의료진은 참혹한 아이티 참사 현장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호와 진료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학문과 실천의 결합이 경희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냉정한 지식과 학문의 몰가치성을 넘어선 지성세계.

배타적 이기주의와 정략적 권력주의를 넘어선 인간세계.

이것이 경희의 자랑스러운 지향입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경희는 지난 수년간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과 모교가 힘을 모았습니다.

경희인 모두가 치열한 상상과 창조를 열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희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대학의 새 전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문과 실천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21세기 대학사(大學史)를 새로 쓰는 경희.

'경이로운 경희'의 기품 있는 미래를 여는 경희.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성원하고, 보태고, 도우면서 그 꿈을 함께 이뤘으면 합니다.

내년 2월 착공할 캠퍼스종합개발계획〈Space 21〉과, 이제 막 착수한 세계 정상대학 운용체계 연구〈Governing the Future〉는 이런

경희인의 원대한 꿈을 이를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함께 큰 박수로 경희의 힘찬 미래를 성원했으면 합니다.

#### 4. 2011년도 총장 신년 인사

## 2011년도 총장 신년 인사

신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해 경희엔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캠퍼스 곳곳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경희의 위상.

인간사랑의 전통을 이어갈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 출범.

우리 교수님들의 탁월한 교육·연구 성과와 학생들의 학교사랑.

교직원분들의 헌신적 행정 서비스.

환자 만족도 최정상 대학병원 달성과 세계도처에서 펼친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

경희가족 모두가 2010년에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성취와 보람입니다.

땀방울을 흘리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사로운 일들입니다.

지난 10월 경희는 'Magnolia Story'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장학금과 국내외 봉사·실천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성금 캠페인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제자를 위해, 후배를 위해, 그리고 동료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훈훈한 이야기가 캠퍼스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큰 감동을 얻고 갑니다.”

“작은 사랑이 모여서 진정한 경희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성공해서 크게 내겠습니다.”

“경희대 파이팅.”

시작한 지 불과 2달여, 소액기부 역사로는 유례없는 10억 가까운 성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이미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경희의 새 문화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함께, 경희는 새해, 새 희망을 열고자 합니다.

전 경희인이 염원하던 캠퍼스종합개발계획 <Space 21>이 올 2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경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21세기 미래대학이 요청하는 새 공간을 창조할 것입니다.

교육, 연구, 의료, 봉사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문화를 열어갈 꿈의 공간이 태동합니다.

경희는 또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대학행정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행정의 전문화, 성숙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진 대학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고서 <Governing the Future>가 준비 중입니다.

세계적인 대학행정을 준비하는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선도할 미래 대학의 새 꿈을 담아낼 것입니다.

경희의 역동성을 이어가며,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두 사업과 함께, 경희는 올해 경희의 오랜 숙원사업인 '세계적인 경희', '경이로운 경희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그간의 성취를 배경으로, 대학사회의 새 패러다임을 떠받칠 든든한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학문적 탁월성을 지향하는 무한한 열정과 도전.

인류를 향한 헌신적 봉사.

자신과 경희를 위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

이 꿈을 담아줄 <Space 21>과 <Governing the Future>.

새로운 1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해인 2011년이 나라를 뒤흔칩니다.

경희의 새 포부와 함께, 더 멋진 우리들의 미래, 성숙한 대학사회의 문화세계를 함께 열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경희의 자랑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일구어낸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찬회 일정이 무척 빠빠하게 짜여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경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닿으면 합니다.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5.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 2011년 2월 16일

# 시민적 가치를 위하여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학부모, 친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사장님, 총동문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졸업식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강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주제였는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평화의 전당 4,000여 석이 꽉 찼다고 합니다.

우리 재학생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청중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특강 전후로 샌델 교수의 책은 7~80만 부리는 경이로운 출판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중 텔레비전 매체가 방영한 그의 강연도 예상치 못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을까.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정의, 그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정의, 혹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매우 큰 관심과 함께, 오늘 이후 바로 그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인으로, 극작가로, 체코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브 하벨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 현대문명의 눈부신 성취와 함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편익함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과 쟁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지식정보가 폭주하는 세상에선, 사물과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전화와 아이폰, 아이패드에 매달리며 정보 획득에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미를 해석하는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풍요가 함께하는 시대’, ‘지식정보가 폭주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가치의 혼란과 삶의 깊이 있는 해석이 결여된 시대.’

현대사회, 시민적 가치의 흐름에 해안을 가진 분들의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요.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셨습니까.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은 크고 작은 꿈을 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인 특유의 문화를 기대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생활을 하면서는 어땠던가요.

그 꿈과 문화를 향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체험하기도 하고, 현실의 제약 속에서 아예 꿈과 이상을 사회진출 후로 미뤄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대학 시절 취업과 현실의 급박함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 사회적 삶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더 많은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

“당장 활용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성장을 끌어갈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영어에 능통한 국제인을 길러내고, 나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부분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사회의 이런 요청은 대학이 경제적 성취와 급박한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육에 더욱 치중하게 합니다.

특히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은 경제와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학이 이처럼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이끌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학도 사회기관입니다.



사회기관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과도한 책임은 심각한 양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자칫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학술기관입니다.

학술기관의 처음과 끝은 학술입니다.

학술 그 자체에 목표를 뒤야 합니다.

다양하고 심오한 학문을 지향하며, 긴 호흡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 외에도, 역사발전과 문명창조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다양한 시대적 가치, 시민적 가치, 상상과 창조의 세계를 탐색하며, 학문의 궁극적 목표인 더 나은 사람과 세계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대학의 소임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인식과 함께 대학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제와 개인의 탄생.’

‘더 넓고 깊은 사람과 세계를 향한 가치 탐색.’

어디에 비중을 뒤야 할지, 대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을 꿈과 현실 사이의 혼란은 바로 이런 대학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범람하는 사회적 요청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결과는 대학의 혼란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추세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이 때 두 인식의 차이는 대학인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두 인식 사이엔 반드시 대립과 충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통을 넘어 공감 지대를 찾아나서는 것이 이 시대 대학과 대학인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성공적인 경제와 개인의 탄생을 원한다고 해서, 인간사회의 시민적 가치를 저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경제와 개인적 성취를 배타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이 2년 만에 중퇴했던 하버드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위 수락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엔 큰 시야를 갖지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얼마 전엔 기아, 빈곤, 질병,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bring the world's best minds to the world's biggest problems.”

“대학교육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게이츠 회장이 평생 이룬 개인적 성취엔 세상이 주목하는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내실, 운영방식, 그리고 그 성과.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성공적 기업의 원형입니다.

그런 그가 대학교육의 위험을 말합니다.

철학부재의 대학교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어떤 라디오 대담에선 근래에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특강 DVD를 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빅뱅, 지구 위 생명, 인류의 출현 Big Bang, Life on Earth, the Rise of Humanity〉이 그 특강 제목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게이츠 회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세계적인 부호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개인적 성공, 기업의 성취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면, 세계적인 관심, 학계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세계가, 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성취 외에도, 그의 인생역정이 시민적 가치와 함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츠 회장 사례는 두 가치 간 간극이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배움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했다면,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결함을 위해 준비해왔던 셈입니다.

더 큰 올림의 세계를 향해 암중모색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가치의 호환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자신과 타인, 세계와 지구로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학에선 후마니타스 칼리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 교양과정을 통합한 교양 총괄기구가 탄생했습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며 대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책임있는 지구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경희 특유의 열정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의 삶과 성공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비판적 사유를 통해 확장된 나,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고등교육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취지입니다.

출범 초기엔 논쟁도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 문명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이 사회진출을 위한 전공교육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틀 지워진 고정관념은 기우일 뿐입니다.

두 교육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상과 창조 의 원천입니다.

앞서 살다간 지성과 지혜로운 삶이 말해주듯, 상상과 창조는 인간과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에 비해 전공교육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개인과 경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교육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넓어야 깊을 수 있고, 깊어야 넓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제합니다.

상호 전제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자신과 세계, 실천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경희는 61년의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의 한복판에 인간과 문화, 과학과 문명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열림이 거듭나는 세계에서 경희는 사회인,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성장 동력, 열린 가치를 꿈꿔왔습니다.

기초·교양 학문과 전공·실용 학문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선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공감지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과 사회의 화급한 문제를 목전에 둔 채, 가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천착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의 파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회 지성의 책무는 이런 파도를 헤쳐가는 데 있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감지대를 구축하는 일.  
이것이 대학, 대학인의 책무일 것입니다.

경희는 원합니다.

세상은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성취와 보람이 더 큰 자신과 세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큰 관심을 표명한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공감과 창조적 새 날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 6. 2011학년도 1학기 합동 교무위원 연찬회

인사말 / 2011년 2월 23일 - 24일

### 전환, 공감과 창조

몇 주 전부터 '전환, 공감과 창조'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새벽 인사말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연찬회 인사말은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찬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발을 서두르다가 미처 작업한 원고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양양襄陽이라는 지명의 뜻이 궁금해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양양襄陽'은 한자로 앞의 양襄은 '도울 양襄'입니다. 동시에 '이루다, 오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의 양陽자는 '벌 양陽'입니다. 태양, 양지를 의미하는데, '인간 세상'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양양襄陽' 두 단어를 합치면, '이루고 오르며 만들어진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람을 위한 세상을 이루고 만들자',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자'는 뜻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 풍광도 좋고, 지명도 우리의 뜻과 흡사하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환'이라는 큰 주제, '새 시대, 명문대학의 새로운 조건'이라는 큰 화두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가 이번 연찬회 주제입니다. 1박 2일의 연찬회 일정을 마치고나면, 이 주제에 관해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 주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노력을 기울리 해 아직까지 식견을 갖추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NASA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얼마 전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월터 맥두갈 Walter A. McDougall의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는 책입니다. 'A Political History of the Space Age'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NASA의 역사를 정치사학적 관점에서 다룬 책인데, 폴리 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인류 문명의 진화, 진보를 가장 상징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 NASA의 탄생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언급한 책과 다른 저자들의 관점을 종합해보니,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1958년, NASA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필요입니다. 1957년, 냉전 상황이 심각했던 당시, 소련에서 먼저 스푸트니크 Sputnik 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로선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촉발제가 되어 미국이 전후 냉전 체제를 지배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세계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NASA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냉전체제

하의 미·소 간 경쟁, 거기서 비롯된 정치적 야망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지구 밖 외계, 우주의 새로운 대양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경계를 넘어서려는 열정이 NASA라는 20세기 문명을 상징하는 기관을 탄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 가용한 과학과 기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미국인의 호기심과 상상력, 외계를 향한 인간의 무한한 열정을 담아낸 것이 NASA의 설립 배경이라는 시각입니다.

오늘 엉뚱하게 NASA를 언급하는 것은, 그 설립 배경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대학은 이 자리에 계신 교수위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새로운 제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학사회에서 경희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 더 나은 대학을 위해, 남다른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위상 강화는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 대한 사회 인식, 국제 인식을 바꿉니다. 대학사회에서 성공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바로 이런 노력에 대해 학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시각입니다. 긍정의 반응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 견해는, 대학이 너무 경쟁을 의식해 위상과 외부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육기관, 학술기관 본연의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학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많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제 생각은 대학의 경쟁적 현실을 항상 배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 삶의 조건은 경쟁과 함께했습니다. 그 경쟁에는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뜻도 있습니다. 경쟁이 배타적이고, 타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것일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더 나음을 향한 열정과 시도, 자질과 역량은 인류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NASA에 대해서도 부정과 긍정의 시각이 교차합니다. 부정적 측면은 패권 경쟁을 위해 설립된 NASA는 일국의 배타적 이익에만 국한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NASA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인류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 실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우주의 연원은 무엇인지, 그 시작과 끝은 있는지, 생명과 인류의 탄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는지. 이런 물음은 인간 근원에 관한 무한한 탐색과 성찰을 가능케 합니다. 무궁무진한 인간의 상상 세계를 초대합니다. 이런 질문은 인간의 '위대한 발견'을 이뤄냅니다.

대학은 차원이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 확장의 끝은 어디인가. 끝없는 진리 탐구를 통해 자연과 우주, 인간과 문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대학의 지식 탐구를 통해 무한한 물음,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호

기심이 지나치게 탈현실적이라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탈현실, 혹은 초현실적 물음은 현실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현실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결합’은 앞으로도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예를 들면, 소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대학들입니다. 경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 단계에 진입할 수도, 그 단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과거 전통적인 명문의 조건이 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이것은 이론적 문제임과 동시에 실천적 문제입니다. 이론적 측면에선,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학술기관의 모습, 추구해야 할 가치를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새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현실로 전환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주안점을 뒤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 대학이 국내 명문의 반열에 올라선 만큼, 중장기 비전과 함께 시선을 세계로 돌렸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대학, 미래가 필요로 하는 대학.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징적 출발점으로, 올해 우리 모두의 숙원 사업인 캠퍼스 종합개발이 시작됩니다. 올봄 착공에 들어가면, 3~4년 후 1단계 사업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교육·연구 공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 계획 수립, 구성원 의견 수렴, 해외 대학 사례 조사·분석 등 많은 분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짝과 정성, 치열한 노력이 깃든 우리의 뜻이 건물로 표현되는 첫해입니다. 원대한 희망을 갖고, 멀리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잠정적으로 ‘Governing the Future’로 명명한 보고서입니다. 해외 명문대학이 명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탁월성을 뒷받침하는 행정 조직, 운영 체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문적 열정과 노력이 있어도, 대학이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원활한 학술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의 변화를 감지해 대학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면, 세계적 대학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숙하고 전문화된 대학 행정,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행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사업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대학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무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각 행정 단위와 본부가 조화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 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과대학, 대학원 발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대학 본부는 큰 틀의 지원, 거교적인 비전 수립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짧은 여생이 남아 있겠지요.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 세계적인 대학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경희의 후학, 후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연찬회 일정이 무척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경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닿으면 합니다.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 통계로 본 경희 2010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10. 4. 1 기준

## 1.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09 결산	2010 예산
서울캠퍼스 교비회계	2,660	2,821
국제캠퍼스 교비회계	1,706	1,710
산학단회계(서울/국제 통합공시)	1,189	1,464
경희의료원	2,563	2,63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712	1,909

\*2009: 결산 기준 / 2010: 예산 기준  
천만에서 반올림

## 2.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전임교원	교수	234	184	418
	부교수	92	64	156
	조교수	99	95	194
	전임강사	64	41	105
<b>총 교원수</b>	<b>489</b>	<b>384</b>	<b>873</b>	

## 3.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일반직	186	149	335
기술직	19	31	50
기능직	7	5	12
연구직	20	13	33
고용직	59	45	104
<b>총 직원수</b>	<b>291</b>	<b>243</b>	<b>534</b>

## 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사무직	169	101
간호직	727	518
약무직	31	33
의료기사직	216	160
연구직	8	2
기능직	524	
임상계약직 교원	68	58
전공의	561	154
기타	51	16
<b>총계</b>	<b>2,355</b>	<b>1,042</b>

## 5.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2,966	12,246	25,212
대학원(전문, 특수 포함)	6,316	715	7,031
<b>총 학생수</b>	<b>19,282</b>	<b>12,961</b>	<b>32,243</b>

## 6. 취업률

단위: %

구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서울	56.6
국제	57.9
<b>계</b>	<b>57.2</b>

\* 학부기준



## **목련리포트**

**2011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발행일** 2011년 6월 30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www.khupress.com](http://www.khupress.com)

[khsd3080@khu.ac.kr](mailto:khsd3080@khu.ac.kr)

©경희대학교, 2011

ISSN 2005-7539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